

윤석열 대통령,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환송 만찬 격려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4. 6일 부산 APEC 누리마루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환송 만찬에 '깜짝' 방문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시·도지사들은 실사단과 각각 인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국무총리와 장관들, 그리고 여·야 소속 시·도지사 전원이 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실사단에게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을 일일이 소개하며, "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주된 안건이 17개 시도지사들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지원계획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 민·관 구분할 것 없이 전폭적으로 부산세계박람회를 지지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시·도지사들은 실사단에게 본인들을 소개하며, 부산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부산엑스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영어로 또는 한국말로 진지하게 설명했다.

대통령은 "만찬장이 지난 2005년 제13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곳으로 역대 정상회의장 중 가장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부산의 대형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곳"임을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APEC 정상회담 당시 만찬과 오늘 실사단 만찬이 동일하다"고 소개하자, 대통령은 "아니다. APEC 정상회담 보다 더 좋은 메뉴로 모실거다"라며 웃으면서 말했다.

참석한 한 장관은 실사단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amazing", "overwhelming", "부산 has everything" 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만찬에 참석한 파트릭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이번 실사일정이 압도적으로 훌륭했으며,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동물을 방생하면 아픈 가족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다고 하면서, "실사단도 방생한 황조롱이가 실사단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실사단이 좋은 컨디션으로 실사를 마칠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해운대구 소재 한 식당에서 시·도지사, 장관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이 실사단을 위해 이미 만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시·도지사들, 장관들이 실사단을 만날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동했다"고 말하며, "실사단도 우리의 진심과 열정을 잘 안 거 같다"고 했다.

이어진 건배제에서 박형준 시장의 "부산 is"의 선창에 따라 모든 참석자들은 "엑스포"로 화답했고, 이어 대통령은 "부산 is Ready"라고 건배제를 했다.

최광수/기자

환경부, 환경데이터 공모전 개최...창업 기회 넓힌다

환경부는 환경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창업 기회 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정책추진을 위해 '제10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환경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과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이 통합됐으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후원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63개 수상팀 중 25팀이 창업하여 122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52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시장 진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성인인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활용과 분석으로 구분되며, △활용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 △분석부문은 아이디어 및 직접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최종경연 진출팀에는 전문가들이 전담으로 상담(멘토링)을 지원하여 출품작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된다.

공모전 참가자 접수는 공모전 통합 누리집에서 4월 24일부터 6주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4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공지된다.

환경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와 국민 평가 등을 거쳐 6월 29일에 총 19개 팀의 최종경연 진출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3,400만 원 규모이며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7개 팀에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나머지 12개 팀에게는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주관·후원 기관 장상이 주어진다.

특히 활용 부문 대상 2팀에게는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관) 본선 진출권이 주어지고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멘토링)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게는 창업공간 지원, 기관사업과 연계 등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 공공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창업에 성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4월 11일 본사사령 강진 추운호 기자

경북도, 영농철 인력확보 본격 나선다! 다양한 지원책 '눈길'

농번기 농업인력지원 시스템 체계적 구축... 공공영역에서 76만명 인력공급



경북도 4월말부터 시작되는 본격 영농기를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공공영역에서 76만여명의 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업인력 지원시스템 구축, 내국인 근로자 공급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을 확대한다.

먼저, 체계적인 농업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 2월 13일 서비스를 개시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농가 및 구직자 구인·구직 신청, 실적관리, 이력관리 등을 전산화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을 강화한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농번기 인력수급 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농작업 진행상황, 인력수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애로사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 10곳을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둘째, 농번기 인력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내국인 근로자 공급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44개소를 운영하던 농촌인력공급서비스를 올해 47개소로 확대 운영해 총 3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지원센터를 통해 도시구직자 등 유휴인력과 농



가를 적기에 매칭해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인력수요가 많은 주요품목 주산지 중 관내 또는 인근지역의 인력공급만으로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운영한다.

도시에서 모집한 1천여명의 인력이 농번기(5~11월) 중 1개월 내외로 농촌에 체류하며 사과, 마늘, 고추 등 작물의 농작업에 참여한다.

또 농식품부와 고용부가 협약을 통시행하는 '도농상생 일자리 채용사업'에 6개 시군이 참여, 약 4만여명의 도시 유휴인력을 농번기 인력 부족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참여형 일손돕기 운동도 지속 추진한다. 도·시군 공무원, 농업 등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학과 연계해 범도민 농촌 일손돕기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실제 일손이 절실한 장애인, 고령 및 독거 농가 등을 찾아 일손을 보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인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군에서 농

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해외 지자체를 중심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제도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18개 시군 5614명을 범부처에서 배정받아 지난 2월부터 속속 입국해 일손을 보태고 있으며 일부는 입국을 위한 사전절차 준비에 한창이다.

아울러 배정받은 18개 시군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도 상시 운영이 가능해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천을 비롯한 4개 시군(300명)에서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를 도입해 농가에 큰 힘을 보탠다.

김주형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도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인력 구조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인력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인력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펴 적기에 인력을 지원해 농가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교육청
Gy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2024년 3월 개원

충청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충남자립준비청년' 만나 실질적 문제 해결 논의

충청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 국민의힘)이 4월 9일 충남의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의원으로서의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찾아가는 정책간담회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민규 도의원 외에도 조원태 청년정책관, 허창덕 복지보육정책과장 등 공무원과 최현숙 충남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장 등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충남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이어유서포터즈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청년들은 간담회에서 △주택문제 △양육 형태에 따른 지원의 차이 △자립정착지원금 △직업선택의 제약 △자립교육문제 등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적 안전망과 실제 경험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민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에 제도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부분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정책을 구분하고 이를 차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의원은 "일회성 간담회로 끝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충남도의회로서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자립준비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행정과 의회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천원의 아침밥' 전면 확대에 총력전 예고

도의회 국민의힘 "도내 전 대학 확대 목표로 추가 예산 투입 등 지원 총동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경기도내 확대를 위해 정책사업 예산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또한 도내 전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천원의 아침밥' 시행 검토 등 적극적인 지원을 김동연 경기지사에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대표의원 박미숙)은 9일 촉구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높은 수요와는 다르게 대학 측에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소극적"이라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추가적인 지원 예산을 투입해 도내 모든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전국적 확대에 확실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가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에 경기도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예산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면 대학의 자부담 비율을 줄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제공되는 식단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가 1차 선정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도내 대학 11곳을 포함, 오는 14일 까지 진행되는 추가 신청을 통해 선정될 도내 대학에도 경기도 예산을 추지 지원(학생 1명 1끼당 1천 원+α 지원)함으로써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올해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민의힘 정책사업 예산 일부를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또한 경기도가 자체 시행하는 '경기도형 천원의 아침밥' 시행 검토를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내 '천원의 아침밥' 사업 미참여 대학이 정부 사업 참여 접수 마감일 이후에도 참여를 희망하면 경기도가 재원을 지원해 더 많은 도내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말로만 '기회'를 외칠 것이 아니라 도내 모든 대학생이 소속 대학의 재정 형편에 구애받지 않

고 '아침밥을 먹을 기회'를 갖도록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천원의 아침밥' 전면 시행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당과의 공조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위한 대책 검토에 즉각 돌입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 뒷받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실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쌀 또는 쌀 가공식품)를 1천 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1식 기준 학생이 1천 원을 내면 정부가 1천 원을 매칭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올해 선정된 도내 참여대학은 가톨릭대, 경희대(국제캠퍼스), 성균관대, 신한대, 한국공과대, 한국폴리텍대(화성), 화성과학기술대 등이며, 오는 14일까지 추가 참여대학 접수가 진행된다.

조혜영기자

통영시장·시의회, 품목별농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통영시는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회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7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분야 보조 지원사업과 건의사항 그리고 통영 농업과 농촌분야의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장이 마련됐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현재 21개 회에 615명이 가입되어 운영 중이고, 현장문제의 자율적 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품목별 기술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조직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선도해 가는 든든한 전문농업인으로



한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며 "연구회별 상호 정보교류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농업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통영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이윤준기자

이새날 서울시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스쿨존 안전 강화 조례안 대표발의 이새날 의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위해 지속적인 노력"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6일 서울 언북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캠페인을 추진하고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함께 통학로 개선 상황을 협의했다.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주민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의 앞 글자를 따 '가나다 캠페인'으로 정하고 학생들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구호 설명, 교통안전 기념품 배부 등이 진행됐다.

이날 교통안전캠페인은 이새날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성명 강남구청장, 함혜성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대식 강남경찰서장,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이 참석해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상황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 졌다.

이 의원은 지난 달에도 청담동 주민센터 직원 및 직능단체장,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사 등과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 안전 수칙 안내 등의 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학생 통학로 안전을 위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 조례안이 지난달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학교 교통사고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지속적인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의무화와 함께 전자시스템 관리, 안전지도 및 교육,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최광수기자



더 크게 들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경상남도의회 정규현 의원, 마산삼진중 다목적 강당 건립을 위한 설명회 개최

학생 체육 교육 활동 운영 등을 위한 다목적 강당 신축 필요성 확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현 의원(국민의힘, 창원 9)이 7일 마산삼진중학교에서 학생 체육 교육 활동 운영 등을 위한 다목적 강당 건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용범 경상남도의회 부의장, 안승기 경상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장, 김종식 창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임미선 창원교육지원청 시설과장과 삼진중학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총동창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규현 의원은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 및 모든 분들이 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다. 다목적 강당이 신축되면 학교 체육 활동 정상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체육 문화 거점센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학교와 담당 부서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강당 신



축까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등을 조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현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2023. 4. 6. (목) ~ 4. 19. (수) 14일간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https://council.yongin.go.kr>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영인,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표 '서해뱃길사업' 본격화...여의도 선착장 신규 조성

여의도에 한강~경인아라뱃길 운항을 위한 다양한 선박이 접안가능한 선착장 조성

오세훈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인 서해뱃길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26년 상반기 개항 예정인 서울항 조성'에 앞서 한강~경인아라뱃길 운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선박 운항을 활성화하고자 여의도한강공원 내 신규 선착장 조성에 나섰다.

신규 선착장의 위치는 마포대교 남단과 서울항 예정지 사이 공간으로, 다양한 규격의 선박을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가능한 많은 선박이 활발히 왕래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선착장의 규모는 연장 102m× 폭 32(45)m로, 1천톤급 이하 선박 3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구조이다. 선착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대(폭 6m)를 넓게 설계했으며,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합실,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여의도 선착장 완공과 동시에 서울시는 민간선사와 협력해 한강~경인아라뱃길의 정기 운항 노선(연간

150회, 1일 1회 기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운항 기본노선은 여의도 선착장~아라뱃포여객터미널~아라뱃천여객터미널이며, 향후 민간선사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해도서 등 운항 노선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작년 10~12월 1천톤급 선박을 운영하는 민간선사와 협력하여 한강~경인아라뱃길 운항 노선에 대하여 여의도 부근에서 회항하는 코스로 총 15회의 시범 운항(총 승객 3,838명)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여의도 선착장이 조성되면 '24년부터는 한강 내 1천톤급 여객선 등의 정박이 가능하여 서울시민과 서울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수상과 육상경로의 연계관광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관광객들은 오전에 배를 타고 수상으로 이동하면서 한강 유람, 선상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경험하고, 오후는 관광버스타나 배에다 실어 온 자전거, PM(personal mobility) 등을 타고 명소관광, 서해섬 투어 체험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서해뱃길만의 독특한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26년 상반기 서울항이 조성되면, 서해에서 출발한 5천톤급 크루즈가 한강에 정박하여 서울 명소방문 등 기항지 관광을 할 수 있으며, 한강에서 출발하여 군산항, 목포항 등을 거쳐 제주항까지 크루즈 관광 등도 가능하게 되어 한강을 찾는 보다 많은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26년 국내항 조성 완료에 이어 '28년까지 CIQ(세관, 출입국, 검역) 도입 등 국제항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6년 서울항 조성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의도 선착장을 이용하는 선박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해뱃길 운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선착장 신규 조성사업은 민간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선착장 조성 및 선박 도입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이뤄지며, 서울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선착장은 '23.4월부터 설계에 착수

하여 이르면 '24.1월 선박 시범 운항을 거쳐 한강의 결빙기가 끝나는 '24.2월부터는 본격 운항한다.

사업자 선정은 공고(2.27~3.21.)→제안서 접수(3.21.)→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3.23.)→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3.24.)의 절차를 거쳤다.

시는 선착장 조성 및 선박 운항과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 조건 이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선착장을 조성하는 민간선사와 협력해 서해뱃길을 운항하고자 하는 다른 선사의 선박들도 자유롭게 계류 또는 정박할 수 있도록 선착장을 개방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매년 사회적 약자 2천여 명에게 무료승선 기회 제공,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체험, 직업체험 등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항 조성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3.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 또한, 서울시는 이르면 5월부터 수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한강 주운수로 인근의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어업피해 영향조사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들은 인구 천만의 큰 도시 한가운데 강폭이 한 1km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수량을 가진 한강에 감탄한다"며, "해외관광객 3천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이번 여의도 선착장 조성을 시작으로, 한강~경인아라뱃길의 정기운항, 서울항 개항 등의 계획을 구체화 나감과 동시에 환경단체들과도 꾸준히 대화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 한강의 자연성 역시 최대한 보존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송파구, 민생 경제 회복 돕는다... 소상공인·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송파구가 서울시와 손잡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송파구는 코로나19 발생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총 2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송파구 희망플래너'와 156억 원 '대규모 용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제도약의 발달을 마련해왔다.

먼저, 구는 일 자리를 늘리면서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기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채용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1인당 300만원씩,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송파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모두 이달 30일까지 송파구청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누리집 또는 전담 안내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고용장려금은 오는 7월, 고용유지지원금은 6월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기간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2023.4.10~5.31)

지원조건 신청 일자 기준 신규 채용 인력 중 6개월 이상 채용 (2023.4.10~5.31) (연간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4명 이상 신규 채용 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기업체당 최대 10명)

신청처: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02-203-3141, 5395) / 전담 안내번호: 02-203-3141, 5395

상공인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금천구,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 '줍GO, 줄이GO, 즐겁GO 금천!' 실시

금천구는 4월 8일 제1회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 '줍GO, 줄이GO, 즐겁GO 금천!'을 안양천에서 개최했다.

플로깅은 스웨덴어로 'Ploke(줍다)'와 'Walking(걷다)'의 합성어다. 조깅을 하는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줍GO, 줄이GO, 즐겁GO 금천!'은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8개의 자원봉사 동아리와 함께 진행했으며, 8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7시 30분 안양천 다목적광장 인근에 모여, 경로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8



시부터 9시까지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경로는 금천교 방향과 독산역 방향 두 가지 코스로 진행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른 시간에도 작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금천 만들기에 동참해 주신 자원봉사

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줍GO, 줄이GO, 즐겁GO 금천!' 캠페인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http://chunhyang.org

빛을그리다

2023.5.25^목 ~ 5.29^일

제93회 **춘향제** 남원

Chunhyang Festival

·주최 | 남원시
·주관 | 제93회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 전라북도

5월1~10일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열린다

수원시 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소상공인·협동조합 등 참여하는 할인행사

수원시 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소상공인·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할인행사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이 5월 1~10일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13개 ▲수원시 22개 전통시장 ▲소상공인 4개 지부 소상공인연합회 ▲GS 더프레쉬 등 중대규모점포 ▲AK플라자 수원점·갤러리아 광고점·롯데백화점 수원점 등 백화점 ▲뉴코아동수원아울렛, 롯데쇼핑아울렛, NC백화점, 엘리웨이광고 등 쇼핑센터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조합원 점포 286개소가 참여한다.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은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행사할인 품목은 최소 5% 이상 할인하고, 전통시장은 온라인 장보기 할인행사를 한다.

화서시장·못골종합시장은 전 품목 30~50% 할인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배송한다.

5월 1일~7일에는 나눔 경매·고객사은행사인 '응원 챌린지'를 연다. 1일 수원남문권 9개 시장과 대규모점포가 팔달문 지동교에서 시작하는 응원챌린지는 5일 정자시장, 6일 수원가거리상점가, 7일 매산로테마거리 문화광장에서 이어진다. 나눔 경매 수익금 전액은 기부할 예정이다.

5월 1일에 오후 2시에는 지동교 광장에서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개막식을 연다. 거리 공연과 함께 라디오 공개방송을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판매 부스, 나눔 경매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향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행사가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며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광명시, 시민 안전 등 주요 정책에 빅데이터 접목

유동인구 밀집지 분석 통해 안전사고 예방지역 3개소 선정

광명시가 시민 안전 등 주요 시정 분야에 빅데이터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지난 3월 '광명시 유동인구 밀집지 현황'과 '광명시 인구현황별 파악 및 장래인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어느 곳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변화 속도에 부응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빅데이터 등을 통해 정책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안전사고 예방지역 선정... 안전관리 강화, 지능형 CCTV 도입

우선 각종 행사와 축제에 인파가 몰려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광명시 유동인구 밀집지 현황' 빅데이터 분석은 2022년 실시간 유동인구, 경사도, 도로 폭 등 데이터에 기반했다.

시는 결과를 반영해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지역' 3개소를 선정하고 광명경찰서와 협력해 선정 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선정 지역은 ▲광명3동 스타벅스 광명사거리역점 일대 ▲광명7동 GS25 광명스타점 일대 ▲철산역 앞 삼거리 일대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관내

지역에 '딤러닝 기반 영상분석'이 가능한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환경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은 CCTV에 딤러닝 기반 영상분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유관 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각종 사건 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딤러닝 기반 영상분석은 촬영 대상의 움직임을 분석해 배회, 침입, 군집, 역주행, 쓰러짐, 화재, 쓰레기 투기 등 8가지 유형으로 확인되면 '광명시 통합관제센터'로 통보해 모니터링 방식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구 빅데이터 분석 반영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장래인구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인구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에 활용한다. 미래 인구변화를 예측해 각 정책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분석 결과는 출산 촉진금 지급사업, 50세 이상 신중년 대상 광명시인생다모작지원센터 및 통합취업지원센터, 평생학습지원금, 1인 세대 지원 등 정책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 인구는 공동주택 공급 추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 요인으로 2025년

윤용민/기자

2023 안양충훈벚꽃축제 성료... '내년에 다시 만나요'

최대호 시장 "시민에게 희망의 축제...즐거움, 행복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안양시는 4년 만에 대면축제로 돌아온 안양충훈벚꽃축제가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9일 이틀간 충훈2교 하부 안전천 산책로 및 석수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시민 3만여 명이 방문해 벚꽃가요제, 벚꽃콘서트, 태권도시범공연·시니어모델공연 등 시민공연, 버스킹, 체험부스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겼다.

8일 오후 2시부터 중앙무대에서 진행된 벚꽃가요제에는 안양시민 28팀이 경연에 올라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대상의 영예는 '존재의 이유'를 열창한 동안구 관양1동의 양주형씨가 차지했다.

9일 오후 7시 벚꽃콘서트에는 가수 박세욱, 장승미와 소프라노 문경민, 해바라기댄스팀이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차 없는 거리의 컬러링북·비누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17개 팀의 깜짝 버스킹 무대도 축제의 매력을 더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9일 벚꽃콘서트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을 잘 견뎌주신 시민들에게 희망의 축제됐길 바

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축제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로 함께해주신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이권재 오산시장, e-편한세상오산세교 입주민과 '백년동행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7일 e-편한세상오산세교아파트 입주민들과 만나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오산시 외곽에 위치하여 도로 및 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 관련 주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e-편한세상오산세교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해당 문제점의 해소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전제됐다.

이날 오산시의회 이상복, 조미선 시의원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이동우 회장과 현안 사업에 관심을 가진 입주민들이 참석하여 자유토론 형식의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등 간담회는 시중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이권재 시장은 직접 마이크



를 들고 ▲대로 2-11호 개설공사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 ▲서량동 돌레길 조성사업 관련 사항 ▲세마초등학교 관련 ▲지곶동 학생 통학 및 운행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소통 간담회

는 지난 2월에 성료된 '백년동행 소통한마당'에 이어 지역 주민들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앞으로도 오산시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공유 및 협조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오산시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양시현/기자

인천경제청·인천TP, 스타트업 인력난 해소 소매 견었다

지난해 이어 인천 스타트업파크 입주 및 지원기업·청운대 '잡 매칭 페어' 행사 성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스타트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소매를 견어부쳤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에 이어 최근 개최된 인천 스타트업파크와 청운대의 '2023 잡 매칭 페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스타트업의 직무와 대학생들의 전공을 고려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인천 스타트업파크 입주 및 지원기업 23개사와 3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잡 매칭 행사는 인턴십 형태로 진행되며 스타트업은 청년 인재 매칭을 통해 젊고 열정적인 인재를 영입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참여 학생은 실제 현장에서 전공 관련 업무 경험을 쌓음으로써 스타트업과 학생 간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내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강소 스타트업의 기업문화를 체험하고 전공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

회"라며 "인턴십을 통해 대학생들이 창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업무 커리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 스타트업파크 관계자는 "인천 관내 대학교의 청년들을 우수한 스타트업과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만능적 고인인 인력난 해소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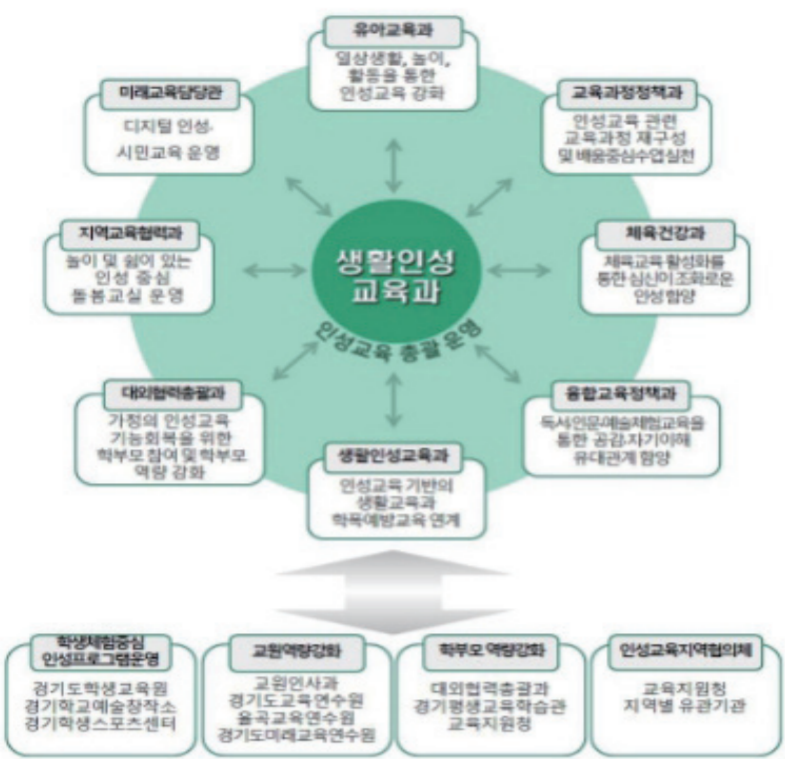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대한민국 1호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지난 2021년 2월 개소 후 실증·투자·글로벌 진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창업 지원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종남/기자



경기도교육청, 경기인성교육의 통합 지원 위해 8개 부서가 힘 모으다

2023 경기인성교육 협의체



경기도교육청이 부서별 인성교육 정책 공유와 통합 지원을 위해 '경기인성교육 협의체'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생활인성교육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체육건강과 ▲융합교육정책과 ▲대의협력총괄과 ▲지역교육협력과 ▲미래교육담당관 8개 부서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정기 협의회와 안건에 따라 수시 협의한다. 도교육청은 10일 오후, 1차 실무 협의회를 열고 ▲통합지원 체계 구축 ▲부서별 인성교육 정책 추진 현황 공유 ▲정책 추진 전략과 적용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방안 등 인성교육 정책의 발전적 방향과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또, 복잡한 윤리적 문제와 갈등이 있는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학생을 위

한 새로운 방향의 인성교육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기인성교육 모델의 현장 적용을 위해 협력한다. 협의회에서는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인성친화적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놀이중심 인성교육 ▲신체활동 중심 인성교육 ▲예술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가정연계 인성교육 ▲부모교육 ▲인성 중심 초등돌봄교실 ▲디지털 인성교육 등 각 부서의 인성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인성교육은 교육의 기본으로, 모든 교육활동에서 체득해야 한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부서 간 유기적 협업과 통합 지원으로 경기인성교육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게임쇼 '플레이엑스포' 5월 11~14일 개최

- 가족, 친구들과 '즐길 기회', 게임사의 '성장 기회', 게임 문화 '융합 기회' 있는 플레이엑스포 5월 11일부터 킨텍스에서 개최
- 전통적인 상담회 구조를 탈피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기반 수출상담회(B2B) 운영
- 콘솔, PC/모바일, 인디, 아케이드 등 다양한 장르 신작 게임 소개되는 전시회 운영
- 누리집(playx4.or.kr) 통해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4/15일까지) 및 전시회 일반 관람객 사전 등록 진행(단체는 4/28까지, 개인은 5/10일까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주관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 '2023 플레이엑스포(PlayX4)'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플레이엑스포는 '게임을 즐기자! 기회를 만들자! (Enjoy Game! Make Chance!)'를 주제로 가족, 연인, 친구들의 '즐길 기회', 인디·신생 게임사들의 '성장 기회', 다양한 게임 문화가 교류하는 '융합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그동안 플레이엑스포가 중소기업사의 판로 개척과 게이머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견인해 온 만큼 이번 행사도 게임사와 관람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한다. 플레이엑스포는 크게 수출상담회(5월 11일~12일, 제6홀)와 전시회(5월 11일~14일, 제7~8홀)로 진행된다. 더불어 지난해 58개 대학이 참여한 캠퍼스 대항전과 더불어 장애인 대회, 인터넷 유명인(인플루언서) 초청 이벤트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경기이(e)스포츠 페스티벌'이 올해도 플레이엑스포에서 동시에 개최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오는 9일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스포츠 정식종목으로 편성된 만큼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국가대표 평가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출상담회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국내 개발사에는 국내의 유통사(바이어)와 사전·현장 1:1 사업자 연계(비즈매칭)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개발사에는 미주/유럽 등 해외 게임 배급/유통 담당자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24시간 통역 등이 지원된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국내의 유명 게임 유통사(바이어)를 포함해 160개 사가 이미 오프라인 참여를 확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 한국 인디 게임계가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인디 전문 미국 유통사 니칼리스(Nicalis)와 미국의 10대 유통사 티핑포인트(Tilting Point), 독일 대표 PC 온라인 게임 전문 유통사 게임포지(Gameforge), 한국 게임에 투자를 확대 중인 중국 esi 게임즈(esi games), 동남아 최대 유통사 가레나(Garena), 베트남 국영방송사 이 스포츠기업 VTV 라이브(VTV Live) 등이 참여한다. 또한 특별관을 운영해 지식재산권(IP)을 연계한 다양성 확장과 해외시장 수출 판로를 지원한다. 국내 주요 지식재산권 사업자인 CJ ENM에서 특별관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콘솔 연계를 위한 엑스박스(Microsoft XBOX) 및 중국의 문화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인 빌리빌리(BiliBili)이

특별관 구성을 논의 중이다. 이외에도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게임운영사 지사장들의 해외 진출 관련 세미나를 열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등 신시장 진출 방안과 현지 동향 파악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회도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시점에서 개최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콘솔게임 중심이던 아케이드, 인디, PC/모바일 등 다양한 게임 장르의 신작이 소개될 예정이며 코스타벨 대회, 레트로 장터, 다 함께 게임문화 토크 등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위축됐던 게임사와 게이머들 간의 만남과 건전한 게임문화가 다시금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플레이엑스포 수출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공식 누리집(playx4.or.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시회를 참관하고 싶은 일반 관람객은 사전등록(단체는 4/28까지, 개인은 5/10까지) 하면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신청 관련 문의는 플레이엑스포 운영사무국(수출상담회02-6925-6953 / 전시회 031-995-8769)으로 하면 된다.

조혜영/기자



평택시, 2023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평택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평가(2022년 실적 기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지방세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1억7천만원)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지방세 부과정수, 세수추계의 정확성, 징수실적·세수신장율, 도세 행정소송처리,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가격 공정성 제고 등의 6개 기본지표와 9개 가감산 항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했고, 평택시는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세수 규모가 가장 큰 1그룹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다. 이러한 세정 평가는 시·군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을 도모하는 취지로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다. 평택시는 작년,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세의 납기 내 징수 활동 강화, 현년도 체납 최소화 대책 실시와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초과하는 1조 575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부동산 셀프등기 원스톱 안내 서비스 구축, 납세고지서의 선택등기발송 등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납세자 중심 세무 행정을 적극 추진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목욕히 일하는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올해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하남시, 노후교량 등 긴급 점검 추진... 시민안전 최우선

하남시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어난 정자교 보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관내 교량에 대한 긴급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지난 2월부터 전문안전점검업체와 점검중에 있는 교량 전체(소교량 포함) 119개소 중 중장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형식(한쪽면은 교량에 붙어 있으나 반대쪽면은 공중에 떠 있는 형태)의 교량을 포함해 준공 후 20년 이상된 교량, 직전 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 등이다. 시는 긴급 점검을 통해 이번 달 말까지 모든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균열, 누수, 철근 노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구조적인 이상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통한 원인분석 및 보강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철저한 점검과 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교량 구조물을 이용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2023년 고양특례시장기 축구·풋살대회 개최

고양특례시가 4월 9일 고양종합운동장과 축구장, 풋살장에서 '2023년 고양특례시장기 축구·풋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고양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 축구협회가 주관했다. 축구대회에 30대~60대의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 8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풋살대회에는 500명의 청소년과 성인 동호인 선수가 참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구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지구촌 최고의 인기 스포츠"라며 "축구와 풋살 경기에 필요한 체력과 투지,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조직력을 살려 지역과 동호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더 나아가 협동심과 희생정신을 발휘한다면, 미래를 바꾸는 고양시의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후 시민들의 체육 활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다양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승전은 풋살은 4월 15일 토요일 대저동 풋살장에서, 축구는 4월 16일 일요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이천시, '2023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회' 개최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주재, 참여·소통,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48개 청년사업 발표

이천시는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청년아동과'의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앞두고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청년지원정책위원회의 주재로 7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는 참여·소통,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4개 분야, 48개 사업의 추진 상황 및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수요자가 공감하는 청년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청년 삶의 전 영역을 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8개 사업 중, '청년 동아리·단체 활동 공모 사업',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지역 공공과제 및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청년이 직접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청년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여 상생형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이천시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사업'은 지난 달 22일 실시한 청년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 사업으로, 기존 '청년 면접 정상 무료대여 사업'을 확대하여 면접 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헤어·메이

크업, 취업 알선 및 교육 지원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전 과정을 올케어(all care)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올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청년 취·창업 지원부터 휴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청년일자리카페 e-room'을 조성중이며, 공간 앞 부지를 활용해 청년이 주관하는 '이천시 청년의 날 기념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밖에 주요 현안으로 보고된 신규 사업으로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청년드림정책지원사업 △청년스마트잡페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등이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보고회에서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윤/기자

안양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어디?...대피장소 인증 챌린지 진행

안양시가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화학사고 대피장소 인증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양종합운동장(동안구 평촌대로 389) ▲호계다목적체육관(동안구 귀인로80번길52)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경수대로 504)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박달로 470) ▲안양서중학교(만안구 창박로 26) ▲안양서초등학교(만안구 양화로37번길 32) 6개소를 대피장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에 화학사고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대피장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 인증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참여 방법은 대피장소의 표지판 앞에서 찍은 인증사진을 해시태그(#화학사고대피장소, #화학사고대피장소 인증챌린지)와 함께 SNS에 게시하고, 챌린지 참여 QR코드를 통해 게시화면을 등록하면 된다. 시민 관심을 높이고자 추첨으로 참여자 100명에게는 케이크와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5월 26일에 발표하며 개별 통보한다. 최대로 안양시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 수립 및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민·관·군 합동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사고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우영/기자



경북교육청, 대한민국 기능의 중심! 2023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성료!

경북 직업계 고등학생 기능경기대회에서 맹활약 펼쳐

경북교육청은 숙련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개최된 '2023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에서 경북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맹활약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7개 시군, 9개 경기장에서 48개 직종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는 총 369명의 선수가 출전해 최종 142명의 선수가 입상했다.

이번 대회의 입상 선수는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사사 시험 면제와 더불어 2023 충청남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10월 14일~10월 20일, 7일간)에 경북 대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114명이 입상에 전체 입상자의 80%를 차지했으며, 이를 통해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이 3년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 우승의 원동력을 확인해 주었다.

유요 입상 현황은 △금공업고 금4, 은6, 동7 △신라공업고 금5, 은4, 동4 △경북소프트웨어고 금4, 은5, 동4 △상주공업고 금4, 은3, 동3 △구미전자공업고 금3, 은3, 동1 등이다.



고 말할 정도의 수준에 올랐으며, 앞으로도 더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능 역량이 대한민국 선두라

윤근수/기자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 Wee클래스 업무 담당자 연수 및 협의회 개최

학생들을 위(Wee)하여 우리 함께 소통하며 성장해요

경산교육지원청은 4월 7일 학생교육지원관 201호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Wee클래스 업무담당자와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 총 50여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Wee클래스 업무 담당자 연수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 및 협의회는 Wee센터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학업중단속려제 및 학업중단예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각 급별 Wee클래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도왔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이만우 장학사가 참석하여 Wee클래스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협력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산교육지원청 이양균교육장은 "이번 연수 및 협의회는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 서로 간의 협력체제와 상담활동의 안전망이 구축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광삼/기자

부산시, '깨끗한 바다를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 성료

자발적인 시민참여 캠페인으로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 이미지 홍보하고,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기 선보여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 대응에 힘 보태

부산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영도구 하리항, 수영구 민락항, 기장군 일광·임랑해수욕장에서 실시한 '깨끗한 바다를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대응에 힘을 보태고자, 자발적인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뜨거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선보이고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 한국해양구조협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근로복지공단 ▲ 세븐일레븐 ▲ ㈜사조씨푸드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 일광e편한세상·국공립 정관2 어린이집에서 300여 명이 참여해 5일간 해양쓰레기 1톤을 수거했다.

특히, 4월 6일 민락항 해양쓰레기 수거 당일에는 평소보다 2~3℃ 낮은 날씨와 강풍에도 불구하고 잠수사가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침체 해양쓰레기를 건져 올리고, 어린이집 아동들도 연안 쓰레기를 줍는 등 모두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거활동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에 참가한 한 봉사자는 "부산시와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 것에 만족한다"며, "이러한 부산 시민의 염원이 이번에 방문한 실사단에 잘 전달돼 좋은 평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를 맞아 시민들께서 보여 준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부산의 해양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며, "우리시도 관 주도라 아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해양 유관기관과 해군, 경찰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연안정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송종진/기자

청송군, 올해도 예산 5천억 훌쩍 넘어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 5,140억원 규모 군의회 제출

청송군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예산 보다 480억원(10.3%) 증가한 5,140억원을 편성해 4월 10일 청송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청송군의 예산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천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청송군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 및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SOC사업 확대에 집중했다.

우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454억 8,700만원(10.6%) 증가한 4,744억 5,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5억 1,300만원(6.8%) 증가한 395억 4,300만원 규모이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3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45억원, 문화 및 관광 59억원, 환경 60억원, 보건 6억원, 농림수산 151억원, 교통 및 물류 2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97억원 등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개보수사업 6억원, 진보장례식장 기본조사 및 부지매입비 8억원, 현동면공용주차장확충부지매입비 10억원, 황금사과연구단지부지매입비 15억원, 청송클라이밍아카데미모델링 6억원, 전기화물차보급 6



억원, 청송상수도어천2리급수구역확장공사 6억원, 신기천·서시천하상준설및정비공사 7억원, 안덕면고와리길 안전정비사업 6억원, 현동면개일리고무곡지신설공사 9억원, 진보로전선지중화사업 9억원, 종합문화복지타운주차장확장공사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충족진자금지원 3억원, 사과박스지원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추경 편성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며, "특히 군민과 대화의 날을 통해 건의된 여러 사업 또한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보석 같은 별미!' 제13회 영덕 물가자미 축제 예열

'천리미항' 축산항에서 28~30일 3일간 해상 불꽃 쇼 등 펼쳐져

동해안 최고의 항구로 손꼽히는 '천리미항' 축산항에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13회 영덕 물가자미 축제가 열린다.

'블루로드에서 만나는 보석 같은 별미! 영덕 축산항으로'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체험 마당과 문화공연, 부대행사 등을 다채롭게 구성해 그간의 아쉬움을 만회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예전과 달리 핑거푸드존을 조성해 물가자미 살넙넙, 가지미 파파두부, 어만두, 어떡갈비, 가지미살 떡볶이, 가지미 망수육, 가지미 카츠, 가지미살 샌드위치, 가지미 살피스&칩스 등 물가자미를 활용한 색다른 레시피와 신선한 요리들을 다양하게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키즈존 운영을 통해 5가

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맨손 물고기잡이 체험, 어선 승선 체험, 선상 가지미 낚시 대회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요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오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열리며, 박서진, 정다경, 채윤 등 가수들의 개막 축하공연과 함께 해상 불꽃 쇼, DJ라라 댄스파티 등이 펼쳐지게 된다.

영덕 물가자미 축제 추진위원회 정창기 위원장은 "영덕 물가자미의 새로운 매력과 함께 천리미항 축산항과 동해안의 보석 블루로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며, "찾아주시는 모든 분이 안심하고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편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예천군, '저수령 그란폰도' 자전거대회 뜨거운 열기 속 성료

전국에서 2,304명 참가, 사이클 축제의 장...지역 경기활성화 '반짝'

예천군 한천체육공원에서 지난 8일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개최된 '2023 저수령 그란폰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회 당일 행사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2,304명의 자전거동호회 회원들과 밸런스바이크대회에 참가하는 90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모여 활기를 띠었다.

참가자들은 한천체육공원을 출발해 문경 별재와 단양 피터재, 예천 저수령을 차례로 넘어 다시 한천체육공원으로 돌아오는 103.2km 구간의 순환 코스를 밟았으며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격려했다.

이날 1,663명이 완주에 성공했으며 밸런스바이크대회에서는 이다은(경기도 남양주·4세), 양서윤(경기도 평택·5세), 이산군(경북 예천·6세) 어린이가 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저수령 그란폰도는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는 등 진정한 사이클 축제의 장이 됐다"며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을 함께 기원해주시길 바라고 5월 4일부터 7일까지 개



최되는 예천축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 3월부터 예천도효자배 전국 중·단축마라톤 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 경북 선발전, 경북소년체전 육상대회,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체육고 체육대회 양궁대회를 개최해 육상·양궁의 메카 도시 지력을 보여줬다.

이어 4월 24일 제57회 전국 남녀 양궁 종합선수권대회와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 겸 2023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대회,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 양궁대회를 비롯한 예천축구페스타 등 도·전국 단위의 굵직한 15개 대회가 예천군에서 펼쳐져 선수단 2만6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적법성과 신뢰성 제고

봉화군은 2023년 상반기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추진해 지난 6일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이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개정조례 47건, 개정규칙 18건 및 훈령 9건 등 총 74건의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실·과장 명칭 변경 등 미반영된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와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은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당해에 중점추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있다.

봉화군은 각 부서별로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은 물론 자치법

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규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정비는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 조문과 자구 등을 적기에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률 적합성을 제고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북도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 성공적 마무리

서울 경복궁에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14일간 대장정 마무리

경북도는 9일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의 마지막 구간으로 삼골재에서 도산서원까지 마지막 걷기 여정을 마무리하고 폐막식을 개최했다.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는 45명으로 구성된 재현단이 퇴계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지난달 27일 서울 경복궁을 출발해 이달 9일 안동 도산서원까지 5개 시도, 17개 시군구를 거쳐 걸으며 퇴계선생의 참뜻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구간별 주요 일정으로는 2일차 봉은사에서 원명스님(주지스님)의 차담회와 '퇴계가 도산으로 간 까닭'을 주제로 배병삼(영산대학교) 교수의 강연, 4일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남양주시 구간 걷기, 8일차 충청감영(충주관아공원)에서 시창수(퇴계와 송당의 중별 시)와 해설 강의, 9일차 청풍관아(청풍문화재단지) 한벽루에서 시창수(퇴계와 서애의 한벽루 시)와 해설 강의, 12일차 영주 이산서원에서 '영주와 퇴계선생', '이산서원과 퇴계 문인들' 강연, 14일차 마지막 날에는 도산서원에서 고유제와 폐막식을 개



최하고, 13박 14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특히 폐막식에는 귀향길 재현을 경험한 재현단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평가해 대상 1명(도지사상), 금상 2명(안동시장상), 은상 및 동상 7명(도산서원장상)을 시상하고 270km를 끝까지

지 걸은 참여자에게는 안동지역 관광 숙박권을 제공했다.

경북도에서 이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을 퇴계정신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퇴계선생의 귀향은 16세기 서

원운동으로 발전했고, 이는 국가의 자원과 인재를 지방으로 되돌려 놓고 지방시대 혁명으로 이끈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경북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서울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는 노력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 선정, 지역산업기반 인제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지역교육혁명 및 일자리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또 지역 특화형 비자 및 광역 비자 제도를 통한 지방주도형 외국인 정책, 사회통합을 통한 외국인 공동체 구현 등 지방시대 대전환 정책을 누구보다 앞서서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라며 "특히 서원을 통한 지방 인재 양성, 지역공동체 형성, 지방인구 유입 등 지방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퇴계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제2의 퇴계혁명의 정신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김원한 덕은종합건설(주)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가입



의성군은 4월 7일 의성군 덕은종합건설(주) 김원한 대표가 경북 155호, 의성 13호로 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평소 고향사랑과 사회 환원에 관심이 많았던 김원한 대표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번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1억원을 5년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1억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의성군은 이번 김원한 대표를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경북 군 단위 중 가장 많

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김원한 대표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요긴하게 쓰이길 바라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이웃들을 배려하고 나누는 삶으로 크고 작은 노력들을 더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소외된 이웃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고액을 기부해주신 대표님께 감사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아름다운 고장,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주요사업 점검...첨단복합도서관·미술관 조성 사업 등

10일 오전 국소·본부장 회의를 열고 주요 중점사업 점검

주낙영 경주시장이 첨단복합도서관·미술관 건립사업,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옛 경주역사 부지 매입 사업 등 중점사업을 점검했다.

10일 경주시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주 시장은 가장 먼저 첨단복합도서관·시립미술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말문을 뗐다.

첨단복합도서관 건립 사업은 2015년 기획재정부가 한수원 자사고 설립을 불허하면서 추진된 대안사업이다. 시는 한수원 자사고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 780여억원에 시·도비, 한수원 부담비용을 추가로 확보해 첨단복합도서관 조성 부지에 시립미술관을 함께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립미술관은 연면적 2535㎡(766.8평)에 전시실, 수장고, 체험공간 등이 들어선다.

시립미술관 건립 예정지는 첨단복합도서관 건립부지와 동일한 황성공

원 내 문화공원이다.

주낙영 시장은 "첨단복합도서관·미술관 건립사업은 경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 시장은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주낙영 시장은 "한수원 축구센터는 한수원이 경주시민과 약속한 경주중합합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경주 화랑유소년 스포츠클럽구로 지정된 데 이어 건철을 신경주역세권 부지 일원에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가 들어서면 경주가 축구도시 경주로 더욱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주 시장은 폐역이 된 옛 경주역 부지의 활용 사업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필



수이다"며 "소유권을 가진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등과의 업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서 경주시는 옛 경주역 부지 14만 8770㎡(약 4만5000평)를 약식 감정한 결과, 토지·지장물 보상비용으로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

로 잠정 평가했다.

이에 주낙영 시장은 "소유권을 가진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등과 연간 200억원씩 5년 동안 분할 납부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태용기자

예천군수, 선진지 견학을 위한 화랑설화마을 방문!



예천군수 외 직원 9명은 지난 6일 '화랑과 별, 설화를 테마로 한 관광테마파크'인 화랑설화마을을 방문했다. 선진지 견학을 위해 방문한 예천군을 위하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화랑설화마을을 같이 둘러보며, 시설물을 안내하고 현황 등을 자세히 안내해주었다.

현재 영천시에서 화랑설화마을은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 2위(1위: 은해사)에 선정됐다. 지난해 7만 3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지로써의 기대를 높였다. 영천시는 화랑설화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화랑4D동영상관이 있고, 야외에는 설화재현마을과 국공체험장을 갖추었으며 편의시설로는 그린스테이션, 풍월뭇, 공연장 등이 있다.

예천군수는 "영천시에서 잘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리 군에 맞는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명환 관광진흥과장은 "우선, 예천군에서 영천시의 화랑설화마을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모든 방문객들이 기분 좋은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발전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4월 11일은 모두가 대구 도시농부!

대구광역시농림축산식품부 공동도시농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대구광역시는 도시농부의 날을 맞아 4월 11일 오후 2시, 동성로 28아트스퀘어(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2023년 도시농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도시농부의 날은 2015년 민간단체들이 4월 11일을 '도시농부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됐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 + = 土)을 합쳐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2019년부터 도시농부의 날을 기념해 모종나누기, 도시농업 관련 공모전 등 이벤트를 전개해왔으며 올해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성로 광장에서 농식품부, 농협 대구본부와 함께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 농협 대구본부장, 대구지역 도시농업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도시농업을 위한 퍼포먼스와 도시농부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모종 심기 체험과 불고기 등을 제공한다.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 의지를 전

파하기 위해 허브, 공기정화식물, 토마토 재배 키트와 친환경방충제 등을 롤러이벤트와 함께 받아 갈 수 있는 반려식물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

반려식물 나눔 행사는 희망도마를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향후 4회(6월, 8월, 10월, 11월 예정)에 걸쳐 대구 전역을 순회하며, '먹을 수 있는 채식, 치유 효과를 줄 수 있는 화훼, 식물 재테크, 공기정화 반려식물' 등을 주제로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2023년 한해 동안 무료로 분갈이와 식물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반려식물 치료센터(20개소),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도시농업학교와 화초돌봄 서비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교텃밭 지원(25개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치유프로그램 및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체험까지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도시농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도시농부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

4월 11일은 도시농부의 날 기념행사

모두가 도시농부

도시농부의 날 기념행사

일시 | 2023. 4. 11 (화) | 14:00-18:00
장소 | 동성로 28 아트스퀘어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
참여대상 | 광역민 (모든 시민 누구나)
주요내용 | 도시농부의 날 기념식(대중 및 반려식물 나눔 행사(2부))
*모종심기 체험, 도시농부 퍼포먼스, 불고기 나눔
*반려식물(화훼, 공기정화) 및 친환경방충제 나눔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지원

도시농부의 날 (4.11)

2017년 도시농업의 확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차 지역친화적인 도시농업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날로, 매년 4월 11일 지정됨

*모종심기 체험, 도시농부 퍼포먼스, 불고기 나눔

하는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

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

경북도,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지난 7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보건의료인을 격려하고 도민과 함께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시·도의원, 보건의료 단체장, 시군 보건소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보건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 창립기념일(1948. 4. 7.)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부터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 보건의 날 슬로건은 세계보건기구의 'HEALTH FOR ALL'을 바탕으로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며 '5천보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는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참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기용아재의 특강을 비롯해 야외광장에서는 행복한 임신·출산 상담, 마음건강 상담, 맨발걷기 등 체험부스를 운영해 행사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보건기관 8개소에 도지사상이 수여됐고, 개인표창으로 국무총리상 1명, 보건복지부장관상 8명, 도지사상 66명 등 총 75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혼란에 덮여 있던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재정립의 시기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 4차 디지털 산업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를 도입해 AI-IoT 기반 건강관리, 원격진료 등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자립형 건강마을 조성(31개 읍면동),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 난임센터 운영, 전국 최초 소독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학기부 운동을 통한 K-외로움 극복사업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경북도만의 특화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지난 3년 남짓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신 보건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방시대,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간 의로 격차 해소로 '모두가 건강한,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하나 된 힘으로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농업기술센터, 봄철 과수 저온·서리피해 대응 만전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4월 들어 일부 중부내륙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이 잦아 과수 저온·서리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복숭아, 자두, 사과 등의 저온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사후 관리를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3월 기온이 높아 과수 꽃눈 개화 진행이 평년보다 최대 7~10일 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4월 들어 예상치 못한 낮은 기온으로 인해 현재 과수 꽃눈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봄철 과수 서리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이상기상으로 발아기부터 개화기까지 저온 및 서리로 꽃눈이 검은색으로 괴사하거나 꽃 중심 암수술이 갈변하는 증상으로 수정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개화가 빠를수록 피해가 더 커진다. 저온·서리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살수법(미세살수장치를 이용한 물이 얼 때 발생하는 열로 나무 조직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 송풍법(송풍기를 이용한 낮은 온도가 정체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 연소법(고체 연료나 겨울 태워 과원 내 열을 높이는 방법) 그 밖에 아미노산류 영양제 살포로 전해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며, 특히 농가는 기상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재해 예방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득이하게 저온·서리 피해를 받았을 시 개화 초기 빠른 인공수분으로 수정률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하며, 적화·적과 작업을 결실률 확인 후 늦게 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심한 과수원은 수세(나무자세)가 강해져 이듬해 생육과 꽃눈분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질소질 비료, 거름 등 시비량을 줄이고, 여름철에 나오는 새로운 결과지(열매줄기) 유인작업과 가지치기를 통해 수세가 강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이운철 소장은 "매년 이상기상으로 인한 저온·서리로 과수농가 피해가 심해지는 가운데 올해는 개화가 빨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가 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방법 홍보 및 현장 지도에 더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제4회 퇴계 선생 1,700리 귀향길 재현행사 마무리 참 선비의 길 14일간의 여정, 2천여 명 동행

일반인 참가자 40명 중 29명 270km 전 구간 완주

제4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단 행렬이 9일 안동 도산서원에 도착하면서 13박 14일간의 270km 걷기 여정이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안동 도산서원 주차장에서 전교당까지 약 1km를 걷는 마지막 걷기 코스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 유림단체 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도산서원에 도착한 재현단은 상덕사 고유 및 도산서당 강연을 한 후 폐막식을 진행했다. 폐막식은 도산십이곡 합창, 소감문 시상 및 발표, 걷기개근상 시상, 내빈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14일 동안 서울에서 남양주, 양평, 여주, 충주, 제천, 단양, 영주, 안동 도산으로 이어지는 여정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

고자 했던 퇴계 선생의 정신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퇴계귀향길 재현행사는 450여 년 전 퇴계 선생이 선조 임금에게 수개월에 걸친 사직상소 끝에 귀향을 허락받아 경북에서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왔던 노정을 전문가와 일반인 참가자들로 구성된 재현단이 함께 걸으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2019년 첫 행사 이후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참여 규모를 축소해왔으나 올해에는 전국단위 모집으로 일반인 재현단을 구성했으며 구간마다 하루 평균 1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귀향길 재현단에는 전국에서 공모한 일반인 40명이 경북군부터 참여해 12세부터 80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16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4일간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그 의미가 남달랐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 구간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관계자들이 퇴계 선생의 삶과 정신을 도정에 담고자 건



이 행사에 참여했고 지난 3일과 4일 충북 충주시 및 제천시 구간에서도 지역 기관장과 다양한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어 퇴계선생의 귀향 의미를 되새겼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귀향길에서 만난 선생의 넉넉하고도 인간적인 선비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퇴계 귀향길을 걸어가길 수 있도록 성찰과 구도의 길, 대한민국 대표 인문정신 로드(Road)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영양읍, 민·관의 행복한 동행 실천

영양군 영양읍은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취약계층 가구에 밀반찬을 지원하는 '영양가득 饌' 나눔 사업을 2020년부터 4년째 이어 오고 있다. "영양가득 饌(饌)나눔 사업은 결식우려가 높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1인 가구에 매월 2회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밀반찬을 지원하면서 결식 해소는 물론 안부확인도 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영양읍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이다. 이를 위해 현재 영양읍 관내 선희네, 순화네 반찬, 오리대장, 장원가든, 한울가든 등 5개소에서 4년째 반찬을 후원해 주고 있으며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배달 선행으로 관내 취약계층 10가구가 결식 해소는 물론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모 어르신(87세, 남)은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이렇게 영양이 가득한 여러 가지 반

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까지 해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선희 '선희네' 대표는 "식사준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하고, 꾸준히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계속되는 불경기로 가계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는 5개소 업소 대표님 및 배달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성과 마음이 담긴 반찬들이 취약계층 분들이 따뜻한 한 끼 식사 시간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남부메이커교육센터 & 경산발명교육센터, 2023 융합 봄 축제 성료!

경북교육청, '발명해봄! 메이커해봄!' 업사이클링 한마당 개최

경북교육청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남부메이커교육센터와 경산발명교육센터가 함께 남부미래교육관에서 2023 융합축제 '발명해봄! 메이커해봄! 업사이클링 한마당'이 성대하게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융합 축제는 남부미래교육관의 준공 1주년을 기념하고 2023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해 메이커·발명 교육 가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남부미래교육관 강당과 야외에 (GO) 카트 제작 및 운전하기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강당에서는 경산시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수상작 전시와 로보마스터 배틀 게임을 운영해 가족 간의 협업 및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7일은 인근 지역 초·중학교를 초청해 자유학기제 및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일(토)은 경북지역의 교육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 운영의 내실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2023년 남부메이커교육센터와 경산발명교육센터에서 연간 운영할 친환경·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기획해 체험 부스를 통해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GO)카트 제작 프로그램은 이번 행사에 맞춰 분업과 협력을 통해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해 제작·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참여 학생들은 메이커에 대한 흥미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경

윤근수/기자

경북소방본부, 2023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다수 사상자 발생한 복합재난상황에 구급 대응력 강화 계기 마련

경북소방본부에서는 대형재난 사고를 대비한 긴급구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일 오후 구미시민운동장에서 경상북도 주관 도 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긴급구조종합훈련은 오는 27일부터 구미에서 개최되는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개막식 행사장인 구미시민운동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지진과 대형화재가 발생한 복합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과 다수사상자 발생을 가정할 체계적인 구급대응 역량 강화 등에 목적을 두고 시행됐다. 훈련에는 경북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구미소방서, 구미시청, 구미경찰서, 육군 50사단 등 총 21개 기관·단체 455여명의 인원과 장비 57대가 동원됐다. 이날 훈련은 구미 동남쪽 4km 지점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막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구미시민운동장에 대형화재와 관람석 붕괴로 인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단계별 긴급구조 대처 방안을 숙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1단계에서는 지진 발생 및 상황전



파 등 초기대응, 2단계에서는 건물 붕괴 및 화재 대응, 3단계에서는 다수사상자 구조구급 대응 훈련, 마지막 4단계에서는 각 지원기관의 협력을 통한 재난수습·복구 활동을 전개하며 훈련을 마쳤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의한 현장 관리 및 초기 대응능력 강화와 각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협력을

윤근수/기자

세계가 손 내미는 '인공지능(AI)·문화도시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주한 대사 잇단 면담 '광주 세일즈'



강기정 광주광역시시장의 '글로벌 광주외교'가 눈길을 끈다. 문화예술과 AI(인공지능)·빅데이터 중심도시 광주를 내세워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국가들도 문화예술·인공지능(AI) 광주에 호응하고 있다. 7일 개막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문화예술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와 함께 AI·빅데이터 선도도시 광주에 대한 각국 대사들의 손짓도 잇따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연계 전시인 9개 국가 파빌리온 개막식에 잇따라 참석, 문화예술 교류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광주와 특별한 접점이 없었던 스위스·인도·오스트리아·페루 등 주한 대사들을 연이어 만나 교류협력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순차적으로 열린 네덜란드·프랑스·이탈리아·이스라엘·스위스·캐나다 파빌리온 개막식에 참석해 각국의 주한 대사 등을 만나 문화예술과 인공지능(AI) 산업 등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도시외교의 새로운 장이 됐다.

강 시장은 "공존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비엔날레 파빌리온이 각 나라와 광주가 인연을 맺는 시작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해외 유명 작가들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문화예술은 물론 산업 교류를 확대하고 더 가까워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광주비엔날레를 찾은 볼프강 앙거홀저(Wolfgang Angerholzer) 주한 오스트리아대사와 폴 두클로스(Paul Duclos) 주한 페루대사를 연이어 만나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3월 31일에는 아미트 쿠마르(Amit Kumar) 신임 주한 인도 대사

를 만나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우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만난 각국 대사와 대표들은 20개국가를 훌쩍 넘는다.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국제교류 활성화에 힘을 쏟은 결과다.

지난해 8월 필립 S.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접견을 시작으로 독일, 일본, 중국, 영국, 이스라엘, 포르투갈, 프랑스, 베트남 등 20회에 달하는 영상회의와 접견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광주시를 방문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유럽연합대사를 비롯해 핀란드,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19개국 주한 대사를 만나 광주의 강점을 설명하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광주의 주력산업 육성 및 세계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국제교류 지정 확대를 위한 국제도시 역할 강화와 해외 자매·우호도시 다각화 및 교류협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교류도시 발굴을 통해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 개발을 통한 상생공영의 국제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국제기구·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한다.

또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도 꾀한다. 문화교류, 의료관광홍보, 대학교류, 공무원·민간전문가 초청 연수 등을 통해 해외교류 다각화 및 앞장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 등에 앞장선다.

강 시장은 "도시외교는 각 도시만의 고유한 경험을 공유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로 대표되는 문화예술의 도시,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기호회복 도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선도도시라는 광주만의 경험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전남도, 조선산업재도약 위한 인력수급 총력

신규 취업 지원·기능인력 훈련·외국인 직무교육 등 3천100명 양성

전라남도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에 따른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생산인력 3천100여 명을 양성하는 등 부족한 인력 수급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지역 대표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은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해 2025년까지 일감을 확보했다. 대한조선도 2024년까지 일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신규 인력 양성 및 숙련공 고용, 지역 정착 등을 위해 국·도비를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지원사업으로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400명을 지원한다. 또 289명에게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지역혁신 플랫폼에선 친환경선박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745명을 교육·양성한다.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300명에게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해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기능인력 훈련수당



을 265명에게 지원해 숙련도를 높이고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을 200명에게 지급해 기술 숙련 근로자 채용을 유도한다.

또 현장 맞춤형으로 외국인 생산인력 160명 양성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 생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직무역량을

사전에 교육한 후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1차 교육을 수료한 23명이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3월 2차 교육 수료자 35명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1차 교육을 수료하고 취업한 베트

남 국적의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조직문화도 함께 배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은 한 기업은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 한국어 능력도 우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서 오니 정말 좋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3월에 2차 교육을 수료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는 "대학을 막 졸업해 기업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며 "교육을 수료하니 자신감이 많이 생겨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서남권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위한 핵심 현안인 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력도 적기에 양성해 생산현장 인력 부족에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남원시 생태관광 ECO FOOD 전략수립에 따른 생태관광 대표음식 개발

남원시는 지난 4월 6일 '남원시 생태관광 ECO FOOD 전략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최경식 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관계자 및 용역 수행기관이 참석했으며 주요 보고내용은 ECO FOOD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브랜드화 전략 보고, 제품 전시 및 시식 순으로 진행됐다.

개발 제품은 남원 지리산의 산나물을 이용한 산나물 소세지와 이를 활용한 김밥, 지리산 흑돼지를 활용한 한방수육 덮밥이다. 제품은 다가오는 제93회 춘향제에 야시장을 통해 첫 출시 예정이며, 추후 운봉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중심에 판매영역을 확대하고 산나물 소세지 판매기 체험프로그램도 진행 예정이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과 기 추진 중인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연계한 생태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방문객 창출과 재방문을 제고를 위한 관광 활성화와 지리산 둘레길 등 지리산권 관광 방문객



을 위한 대표음식 개발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개발 및 연구 참여하여 지리산 생태관광 대표음식 개발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미식관광 전략을 수립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ECO FOOD의 개발로 남원시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생태관광지 활성화와 주요 타겟층인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남술/기자

전주 도서관에서 1박 2일, '배우고, 즐기고!'

전남지역 독서 지도 교사들이 전주에서 1박 2일간 체류하며 다양한 공간구성과 운영 사례 등 도서관 혁신 우수사례를 배웠다.

전주시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남구례교육지원청 독서교육 담당교사 2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다양한 공간구성과 운영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전주도서관 체험형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의 우수한 도서관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사서 등 도서관 관계자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거여행자도서관, 동문헌책도서관, 연화정도서관 등 전주만의 특색이 담긴 특성화도서관과 서학동예술마을, 한옥마을 등 지역문화 현장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이 1박 2일 동안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을 탐방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전주 도서관 정책사업 소개 △특성화도서관 현장 탐방 △한옥마을 문화 및 생태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한옥마을과 서학동예술마을 등 전주 원도심에 위치한 특성화도서관별 조성 콘셉트와 도서관 운영 사례는 도서관 운영 및 독서프로그램을 고민하는 전남지역 독서교육 담당 교사들에게 큰 공감을 얻어 줬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 도서관을 방문하는 기관 참가자들에게 특색있고 차별화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해 도서관 정책의 우수사례를 알리고, 독서문화 저변을 더욱 넓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 도서관이 특색있는 공간 조성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참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전문성 신장과 역량의 전파는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찾아오는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주도서관 체험형 연수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각각 5회씩 총 10회에 예정돼 있으며, 전국 기관·단체 대상 직무연수와 전북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등 수요자 맞춤형 현장 체험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김승일/기자



강진군, '대표 먹거리 개발 컨설팅 품평회' 개최

'강진 한우 육회 떡볶이' 등 MZ세대 입맛 공략, 맛 브랜드 키운다

강진군이 7일, 군내 음식점(인달)에서 이원일 셰프를 통해 개발한 강진군의 대표 먹거리인 육회 떡볶이와 표고버섯 육전 등 컨설팅 메뉴에 대한 품평회를 군 관계자와 언론사, 한국요식업중앙회 강진군지부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었다.

MZ세대를 포함해 다양한 고객 취향에 맞춰, 맛의 도시 강진 건설로 대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된 이번 컨설팅은 지난 1월부터 5개 업소를 선정하고, 군에서 이원일 셰프와의 접촉을 통해, 군의 특산물을 활용한 업소별 맞춤형 레시피를 제안받으면서부터 시작했다.

이번 품평회에 출품된 음식은 '토하정 비빔국수', '강진한우 육회떡볶이', '표고버섯 육전(덮밥)' 등으로, 이원일 셰프에게 직접 레시피 전수는 물론, 컨설팅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음식을 시식하고 맛 평가를 가졌으며, 군은 추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표 먹거리 개발 컨설팅'을 보완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품평회에 참가한 '인달' 영업주 장인환은 "이원일 셰프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새로운 음식 개발이 지역 상



권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강진군 이준범 문화관광과장은 "강진 대표 먹거리 개발을 통해 강진의 재료를 활용한 특색있는 메뉴 개발과 보급으로, 온라인, SNS 등을 통해 맛의 도시 강진을 적극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강진의 맛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맛의 도시, 강진 육성을 민선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

로 설정하고, 특화된 맛 개발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대표 먹거리 개발 컨설팅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맛의 도시의 새로운 브랜드력을 만들어, 관광객 5백만 유치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강진군의 대표 먹거리로 개발한 강진한우 육회떡볶이와 표고버섯 육전의 홍보를 위해, 파워유튜버 '쏘영'과 먹방 촬영을 진행해 조회수 16만 회를 기록중이다.

추윤호/기자

전북군산형일자리 대창모터스 등 '2023서울모빌리티쇼' 전시 호응

전북군산형일자리 실무추진위원들이 최신 모빌리티 정보를 얻는 자리를 마련했다.

군산시는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 전북군산형일자리 실무추진위원들이 함께 참관했다고 밝혔다.

2023서울모빌리티쇼는 1995년 시작해 2년마다 개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모빌리티 산업전시회로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31일부터 9일까지 10개국 160여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업체인 (주)대창모터스도 참가하여 자체 개발한 카고 전기화물차(다니고-C)를 비롯해 무시동 전기냉동탑차(다니고-R2), 전기상승탑차(다니고-U), 전기워터바다(다니고-W)까지 총 4가지 모델의 전시를 통해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해 어필하며 참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이브이케이엠씨 부스에서는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인 (주)명신에서 생산한 마사다 2번이 전시되어 실속있고 가성비 좋은 전기화물차를 찾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2023서울모빌리티쇼를 참관한 전북군산형일자리 실무추진위원들은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최신 자동차 산업과 제품, 기술들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했다.

(주)대창모터스 오충기 대표는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를 함께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대창모터스는 명실공히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기업이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2023년 6월 대창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으로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 추진과 전기차 클러스터 활성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대통령, 국민, 지역상권, 3心 짝잡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후 일주일 만에 관람객 50만 명 돌파, 매출액 18억 원 이상 달성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다”고 전한 바,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즉각 실현되고 있다.

순천시의 현안 사업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모양새를 갖춰가며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는 ‘도심 우회’로 긍정적 결말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에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사업’역시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박보균 문화부장관은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직접 전화해 에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정부가 추가 지원하겠다고 전해 본격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러한 소식은 순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남다른 애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에 이어 4월 1일 막을 올린 2023정원박람회는 개막 일주일 만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

다. 일주일 새 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은 것이다. 이는 10년 전, 2013정원박람회와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의 수치다.

특히 도심에 새롭게 피어난 대규모 사계절 잔디광장인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그리고 화려한 화훼 연출이 돋보이는 경관정원까지. 입장권이 필요 없는 박람회장 무료권역은 매일 1만여 명 이상이 입장하는 곳으로 안 가고는 못 배길 박람회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하고 있다.

완전히 달라진 국가정원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키즈가든’과 ‘노을정원’도 “동화 같은 세상”,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곳”이라는 등 반응이 이어지며 모두가 애정하는 인기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람객들로 박람회장 주변 상인들은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님들이 많이 와 기분 좋다”, “작년에 비해 매출이 4배



정도 올랐다” 등 박람회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는 상인들도 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1조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박람회 완성도에 있어서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게

준비를 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국민 여러분, 순천에 오셔서 힐링하시고 재충전해가시라.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몸소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김병수/기자

장흥소방서, 1분기 봄철 화재 중 75% “인적 부주의”에 의한 화재

장흥소방서장은 “봄철 날따듯 태우기 및 소각행위 금지 홍보 및 순찰 활동

전라남도 장흥소방서는 2023년 1/4분기 장흥군에서 모두 3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4명(부상 4명), 16억9천3백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화재건수는 3건 감소한 36건(7.7% ↓), 인명피해는 부상 3명 증가한 4명(300.0%)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는 12억9천만원 증가한 16억9천3백만원(320.5%)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전체의 27건(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 5건(13.9%), 방화위험 2건(5.6%)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한 ‘부주의’에 의한 화재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 소각 11건(30.6%), 음식물 조리중 4건(11.1%), 담배꽂초 3건(8.3%), 불씨·화원방치 2건(5.6%), 기기사용 부주의 2

건(5.6%), 임야 태우기 1건(2.8%), 용접 1건(2.8%), 유류 취급중 1건(2.8%)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장흥소방서는 ‘인적 부주의’가 가장 큰 화재요인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봄철화재(임야·산불) 예방 캠페인 등 봄철 화재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고 △소방차, 의용소방대 활용 예방·감시 순찰 및 길터주기 캠페인 △산림 인접지역 화재예방 캠페인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활동 △소방차량 흡수 훈련 및 도상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능력 강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항시 장흥소방서장은 “봄철 날따듯 태우기 및 소각행위 금지 홍보 및 순찰 활동을 통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민들에게도 부주의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박재원/기자

광산구, 스마트 기술로 생활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광산구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전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 활용 정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광주시민이면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주제나 분야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술로 해결 가능한 △행정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법·방재 △교육 △문화 등 무엇이든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5월8일까지다. 광산구 누리집(뉴스·소식→고시/공고/입법)에서 공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산구 산업혁신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타 공모전에 제출한 제안사항은 응모할 수 없다. 저작권 관련 사항은 문체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므로 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광산구는 접수를 마친 뒤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15개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2차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금상 120만 원, 은상 80만 원, 동상 50만 원 등 총 290만 원이다. 향후 선호도 조사 참여자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5000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 활용 정책 발굴을 위해 광주시민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처음으로 여는 공모전이다”며 “광주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22곳 1차 지정... 100곳 육성 목표

먹거리 명소화 ‘나주밥상 브랜드화’ 본격화... ‘건강·안심·배려’ 밥상 실천 서약

전라남도 나주시는 민선 8기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할 맛집 22곳을 1차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맛집 지정은 ‘다시 찾고 싶은 나주, 맛깔나게 즐거운 나주밥상’을 비전으로 한 먹거리 명소화 전략으로 추진됐다.

시는 지역 맛집 100곳을 연차별로 확대 지정·육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나주밥상 맛집은 지난 1월 공모에 이은 전체 신청업체에 대한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평가(음식 품질·서비스·위생시설관리 등)에 이어 3월 나주시맛집선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지정됐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나주밥상 맛집 1차 지정 의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정책 사업설명회를 가졌



다. 업체들은 이날 나주밥상 맛집 실천 서약을 통해 나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건강밥상’, ‘안심밥상’, ‘배려밥상’ 실천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지역 식재료(로컬푸드) 우선 사용’,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인증’, ‘음식 덜어 먹기 그릇 제공’, ‘수저·앞치마 등 위생관리’, ‘남은 음식

폐기’, ‘입식태이블화’, ‘청결한 주방·화장실 문화’, ‘종사자 친절’ 등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 담겼다. 시는 맛집 지정 업체에 대국민 BI(Brand Identity) 공모를 통해 선정(상표특허출원)된 나주밥상 지정패를 교부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은 나주 먹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주밥상 맛집 100곳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음식문화 개선과 컨설팅을 통해 전통과 현대, 맛과 멋, 건강이 조화로운 나주 밥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나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밥상 1차 지정 맛집 목록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만/기자

강진원 강진군수, 성남시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과 면담 가져

“작은 도시의 큰 변화 위한 4차산업혁명 활용 적극 모색”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청을 방문해, 성남시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4차산업혁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성남시의 기술과 경험을 교류하고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 및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출범하고, 공공서비스 분야 혁신을 목표로 ‘5개년 종합계획(2023~2027)’을 추진하는 등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면담은 전남 강진군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최초의 접촉으로 임한다.

면담에서, 다가올 미래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비전에 대해 양 지자체가 뜻을 함께한 가운데, 성남시는 강진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4차산업혁명’에 대해 성남산업진흥원을 통한 적극 협력 의사를 알려 왔으며, 강진군은 상호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은 “성남시는 판교의 기술과 자본, 정보라는 인프라가 있어, 4차 산업 혁명을 행정에 적용하는데 이점이 있지만, 작은 도시 강진에서의 관련 시도는 고무적”이라며, “성남산업진흥원과 함께 강진의 4차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은 작은 도시이지만,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큰 변화를 이뤄갈 것”이라며 “성급하게 성과를 쫓기보다 과도에 있는 기술 적용을 위해 사전 조사와 학습 과정을 충분히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7월, 전남 최초로 4차산업혁명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며, 4차산업혁명 전략 수립위 출범, AI군정뉴스 제작, 챗 GPT 1·2차 시연회 개최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군은 앞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정에 선제적으로 접목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소득창출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추윤호/기자

함평군,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 참가



전남 함평군이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관광 자원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함평군은 “지난 7일부터 3일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축제박람회는 전국 지역축제를 한 자리에 모아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축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지역

대표 축제와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축제 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 관련 바이어 및 기업 등과 1대1 상담도 추진했다.

특히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베스트 축제 어워드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축제 트렌드를 분석하고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완도 해양자원으로 만든 화장품, 미국 등 5개국 수출길 올라

완도군은 지난 4월 7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해양자원을 소재로 만든 화장품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선적식은 완도군 관내 기업 3개사가 캄보디아, 스페인, 미국, 러시아, 두바이 등 5개국을 대상으로 25만 4천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이뤄졌다.

수출 성과를 거둔 3개 사 중 (주)홍일식품은 다시마와 미역귀로 만든 보습 크림을 캄보디아에, (주)그린오션은 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을 스페인에, 어업회사법인 (주)이노플렉스는 미역 유래 후코이단, 다시마, 참돔가사리 등을 활용한 슬러핑 크림 외 4종을 미국, 러시아, 두바이에 수출했다.

특히 도내 화장품 기업 중 처음으로

캄보디아와 스페인에 화장품을 수출하게 되어 이날 선적식은 더욱 의미가 컸다.

이번 화장품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특성과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도 내 화장품 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생산기지를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구축함으로써 화장품 개발 및 생산지원 등이 이루어져 얻은 결과물이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해양 소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을/기자



부산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19곳 적발!

부산시, “시민생활 및 건강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형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주물 제조사업장 및 공사장 등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난방 및 불철 미세 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동절기에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사경은 지난 3개월간 미세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 대

형 건설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42곳을 수사했고, 그 결과 총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곳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미설치 6곳 ▲ 야적물질 상자, 하차시 살수 미설치 4곳 ▲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설치 4곳 ▲ 벽면연마작업 중 방진막 미설치 1 곳이다.

특히, 적발사례 중 A 공사장은 부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자동식 세륜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덤프트럭이 사업장 밖으로 페토사를 운반하도록 해 적발됐으며, B 공사장의 경우는 벽면연마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함으로써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해 적발됐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준진기자

충남도,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도, 5월 9일까지 유어객 많은 내수면 대상 불법 포획 채취 집중 단속

충남도는 내수면 어종의 불철 산란기를 맞아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 동안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시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경찰 등과 합동으로 유어객 밀집지역과 어업이 활발한 호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사용) △불법어구(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

살류 등)를 이용한 포획채취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제장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 어구, 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전량 몰수하며, 누범자는 가장 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 기간 무지에 의한 불법어업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해양수산부는 유튜브를 통한 유어행위

와 불법어업 예방 홍보 및 유어객 밀집지역 등에 불법어업 예방 홍보 현수막을 부착 계도할 계획이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어업인들의 위법행위 방지와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어업 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김해시, 병·의원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집중점검 실시

김해시는 10일부터 2주간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의원 3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이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서 인체조직 적출물, 시험관, 주사바늘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김해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650개소로 연간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위주로 ▲ 배출자 인증기기(비콘태그) 설치확인 및 정상작동여부 ▲ 폐기물 보관기준 및 기간 준수여부 ▲ 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및 인계서 보관확인 등을 중점

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안전관리기준 미준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계·인수방식을 개편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업체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비콘태그’라는 배출자 인증 기기를 의무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점검을 통해 비콘태그 기기 사용과 관련한 불편사항 등도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로 새롭게 시행되는 비콘태그

제도는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업체 입고 시까지 태그별 인계·인수 내역 및 적정처리 여부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상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적정 폐기물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자원순환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위해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안전한 배출 및 처리가 필수이다”라며,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병행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라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옥천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으로 위반행위 다수 적발

충북 옥천군은 초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비산먼지(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장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6개월간 옥천군 소재 공사장 50여 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비산먼지(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고, 건설사업장이나 석탄, 토사 등을 취급하는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초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미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 세륜기 미가동, 방진벽을 미설치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된 업체도 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4곳은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건으로 자체 수사 중이며, 7곳은 경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건별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1곳), 변경신고 미이행(2곳), 살수작업 및 세륜시설 미가동(6곳), 방진벽 미설치(2곳)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적발된 공사장들은 초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비산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염원을 배출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울진해경, 음주운항 선박 단속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알고보니 음주운항까지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제 7일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동방 6km 해상에서 4.5톤 자망어선 선장에 대하여 승선원 변동 미신고 및 음주운항을 한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 경비정이 순찰중 조업하고 있던 4.5톤 자망어선을 발견, 승선원 선원과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선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실시 했다

검문검색 결과 승선원 불일치 뿐만 아니라 선장으로 부터 술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했고, 선장의 요구에 따라 3차에 걸쳐 음주측정 결과 모두 단속수치 0.03%를 초과 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0.036%로 단속하게 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



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음주운항을 절대로 하면 안되며, 선박운항 전날 음주할 경우 숙취 현상

까지 생각하여 육상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정선군, 농경지 부속토 불법 반입 농가 특별합동단속 4월 30일까지 연장 실시

정선군은 영농철 농경지 주변에 살포되는 악취 발생 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농경지에 반입이 금지된 부속토에 대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합동단속을 4월 30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부속된 가축분뇨 등 불량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속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퇴비가 부속될 때 발생하는 열과 가스에 의해 작물에 심각한 생육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부속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속토의 농경지 반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은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속토에 대하여 반입농지 확인 및 시료채취·검사 등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마다 농지로 반입되는 부속토와 미부속 퇴비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와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업을 통해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

며, 적발시 부속토 생산자, 운반자, 반입한 농가까지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에서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장협의회 회의를 비롯한 영농교육, 사회단체 회의 등을 통해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덕중 환경과장은 농경지 토양을 오염시키며 청정정선의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발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농경지에 품질이 좋은 퇴비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인천시, 불법촬영 등 예방 합동캠페인 펼쳐

경찰청 불법촬영 예방 이동형 체험실 및 각종 이벤트도 병행 운영

인천광역시시는 4월 8-9일 양일간, 뱃꽃축제 개최된 인천대공원에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경찰청, 인천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등 10여 개의 권의 시설 50여 명이 참여했다.

여성폭력 예방관련 각종 찾아가는 이벤트와 불법촬영 카메라 예방 이동형 체험실을 마련했으며, 불법촬영 탐지 카드 5천장과 호신용 후루라기를 배부했다.

불법촬영 탐지카드는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됐다. 어두운 곳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에 카드

의 빨간부분을 대고 플래시를 켜 상태로 촬영(동영상 모드)하면 반짝임 여부로 불법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다.

하단에는 유관기관 번호가 안내돼 있어 불법 카메라 적발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불법촬영 및 유포·확산은 중대한 범죄로 시민 모두가 배부된 단속카드를 이용해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시는 향후에도 유관기관·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으로 시민이 안전한 인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불법촬영탐지카드

관심이
안심이
됩니다!

경찰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032-1366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032-517-5170

인천광역시 · 인천대공원 인천경찰청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해양경찰, 출입통제구역 합동단속 실시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는 7일, 지방관리구역항인 거제시 옥포항 내 출입통제구역에 대하여 통영해양경찰서(장승포파출소)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항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옥포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낚시객 등의 반복되는 무단출입 및 항만시설 파손에 따른 조치이다.

경남항만관리사업소는 출입 시 위험성이 높은 옥포항 남방파제(스태방파제), 북방파제(팔랑포방파제) 구역에 대하여 2021년 3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옥포항 항만구역에는 출입통제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지정 안내 및 출입통제표지



판,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이번 합동단속은 행락철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증가에 대비하여 출입통제 위반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항만법」제113조제2항에 따라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항만구역 내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에서 관리하는 항만시설 내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충남도, 올해 도민참여예산제 150억 규모 운영

제1차 충남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총회...역량 강화 교육 병행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효신 도민참여예산위원장을 비롯한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총회는 올해 운영계획 보고, 도민참여예산학교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올해 총 150억 원 규모의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정책사업 공모 분야를 일반, 청년(청소년 포함)으로 구분해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50억 원 중 도 정책사업 공모 일반분야에 40억 원, 청년분야에 20억 원을 배정했고,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에 70억 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에 20억 원을 배정했다. 공모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분야는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연계 추진이 가능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일자리,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청년분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부문에서, 시군 주민 생활 밀착은 사회적경제 및 보건복지 부문 등에서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은 주민자치와 읍·면·동 마을공동체 사업 위주로 선정하며, 7월까지 1차 심사를 마치고 8월 온라인 도민 투표 등을 거

쳐 12월 최종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도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제도 이해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참여예산학교 교육도 추진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민참여예산 이론, 사업 제안 실제 활용제안서 작성 방법 등으로, 화를 위해 도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 협력·소통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도정 참여를 부탁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참여예산제 활성

최정근기자



'빙상도시 강릉' 영광 재현, 2023 컬링선수권대회 준비 박차

세계 31개국 60개팀 참가, 최상의 대회 환경 제공

강릉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2023 세계 믹스터 및 시니어 컬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다시 한번 빙상도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강릉컬링센터와 강릉하키센터에서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펼쳐지는 2023 세계 믹스터 및 시니어 컬링선수권대회는 세계 31개국 60개팀이 참가하며, 원활한 대회 운영과 부족함 없는 선수들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8 동계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강릉컬링센터와 하키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빙질 재정비를 실시하여 최상의 빙질로 선수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개최 전까지 해외 최고의 아이스테크니션을 통해 추가 아이스를 조성하고, 방송 관련 전문가가 카메라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선수 및 관람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경기장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믹스터블 선수권대회 개최식이 열린 강릉컬링센터는 외벽 도색 및 조명교체를 시작으로 아이스 정빙 등의 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올림픽파크 인근 도로 정비, 꽃화분 배치 및 대회현수기 설치를 완료했다.

경기장뿐 아니라 사고 없이 행사를 치르고 선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대회환경도 세심하게 살핀다.

지정 숙박업소 및 음식점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마쳤으며,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소방, 전기, 건축 등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릉시자원봉사센터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대회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149명의 접수를 완료했으며, 오는 20일(목)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컬링선수권대회로 보다 다양한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학교를 중심으로 동계스포츠 현장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도 강화한다.

한편 믹스터블 선수권대회는 22일 17시 15분 강릉컬링센터에서, 시니어 선수권대회는 4월 21일 19시 15분 강릉하키센터에서 각각 개최되며, 개최식에는 강릉시청 소속팀인 팀킵 선수들이 시구 게스트로 출연하여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미로 컬링을 즐겼던 동호인들이 시니어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큰 화제를 모았던 강릉송하클럽이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믹스터블 금메달리스트인 스테파나 콘스탄티나 선수가 출전하고, 시니어 팀 호주팀에서는 부부가 스킵과 코치로, 세계컬링연맹 부회장, 집행위원이 선수로 출전하여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해 왔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선수단 및 관람객들이 강릉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원주시,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 추진

원주시는 오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관내 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및 시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일상생활 속 방치된 각종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적 운동이다.

올해는, 관내 시설물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점검 외에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 안전 취약 및 사고 발생 우려 시설로 선정된 76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시설별 안전 점검 가이드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위험 요소는 보수·보강, 정밀 안전 점검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를 높이고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점검 대상 주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가정용 및 사업장용 안전 점검표 16만 부를 제작·배부해 시민들의 참여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박노영 안전총괄과장은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통해 안전문화가 확산돼 더욱 안전한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대한민국 안전 전환

2023. 4.17~6.16

안전점검 대상: 관내 시설물, 사업장, 주택 등

주요 내용: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문의: 안전총괄과 (031-830-1234)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아산온천 벚꽃축제' 뜨거운 호응

박경귀 시장 "아산온천 벚꽃축제" 10년, 20년 지속되는 축제로 키우겠다"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아산온천 벚꽃축제'가 지난 8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온천 광장 일원에서 진행된 축제에는 실력 있는 예술가들이 공연에 나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연을 선사했다.

오전 1부에는 국악예술단 소리락, 아산시민 관악단 등 지역 예술단체가 오후 2부에는 아산시립합창단, 이창환밴드, 라온파르벳, 혼성그룹 쿨의 김성수 등이 공연을 펼치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제62회 성용 이순신 축제, 온천산업박람회 홍보 등도 활발히 진행됐다.

또, 음봉면 이장협의회·체육회·발전협의회 등 다수의 음봉면 기관단체가 무료 먹거리 부스 등을 운영했으며, 선문대와 호서대 자원봉사자들은 물리치로, 솜사탕·달고나 만들기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해 축제의 장을 넓혀줬다.



행사장을 찾은 박경귀 시장은 "'아산온천 벚꽃축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최근 온천산업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아산온천 벚꽃축제'가 명품 온천 도시 아산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10년, 20년 지속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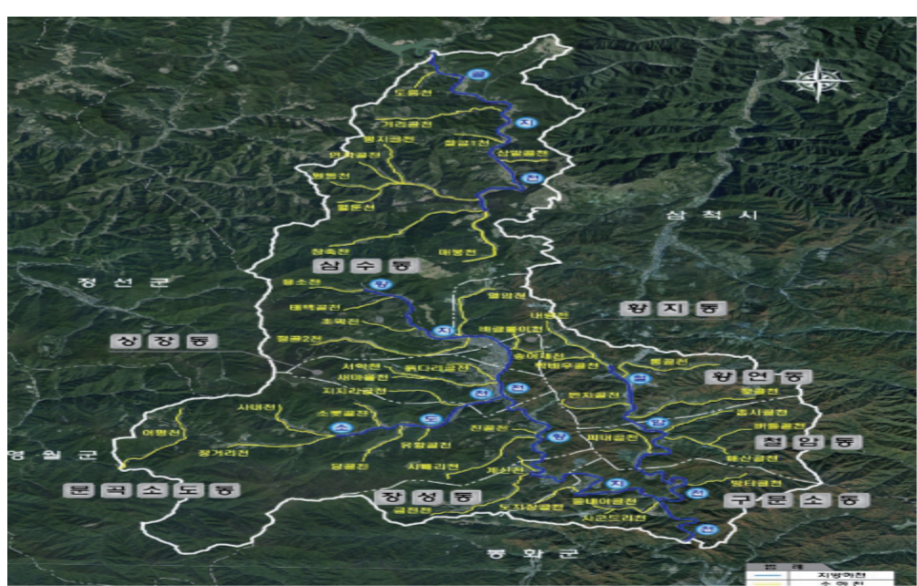
태백시, 주민 안전 중심의 친수공간으로 하천정비

태백시는 관내 하천 48개소(지방하천 4개, 소하천 44)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순차적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하천 재해예방공사는 소도천(2개지구-태백시 시행)에 대하여 총사업비 235억 원을 투입하여 3.9km 구간을 2025년까지 정비할 예정이며, 철암천(2개지구-강원도 시행)은 269억 원을 투입하여 7.8km를 2026년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된 내량천, 방터골천 2개 하천은 작년 12월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중이 있으며, 장죽천, 월동천, 당골천은 6월 실시설계완료 및 7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중이다.

또한, 홍수기전 하천 점검을 통해 위험이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점검 후 우기 전 보수 완료 대상지로는 정거리천, 절골2천, 지지



리골천, 도룡천, 새마을천이 있다.

시는 이번 하천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하천정비의 최우선 목표라는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관내 하천정비 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을 통해 주민들이 하천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강릉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

강릉시는 '2022~2023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인공지능(AI), IoT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에 선제 대응한 공을 인정받았다.

21개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자체 기획

카카오톡 채널 강릉복지개발특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신고 및 각종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 소외 없는 강릉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총하고 두터운 복지 안정망을 유지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강릉시를 만들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천안시,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천안시는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지원을 위해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한국커리어잡스와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대상자 연계 △정보공유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이며, 각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행정지

원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취업 지원 대상자 연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주)한국커리어잡스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동현 부시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와 지역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화천군민 서명운동 전개

접경지 화천군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화천군은 8일 화천을 화천전통시장 5일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첫날인 8일에는 장터에 나온 수십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위해 펜을 들었다.

또 화천군 노인회원들을 비롯해 화천군 새마을회 회원들도 서명 열기에 불을 지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향한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범군민 서명운동은 주민과 기관사회단체 회원들의 참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군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천군 홈페이지와 SNS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각오다.

화천군민들이 서명한 결의문은 '지난 20세기 강원도는 안보와 경제, 환경, 수도권 및 중부지역 전력과 용수 공급 등 국가적 목적을 위해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희생해왔으나,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또 '지난 2월 국회에 산림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핵심규제 개선과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우리 화천군민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인 화천군 입장에서 4대 규제 개선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세나기자



충북도, 창업기업 투자유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충북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3회 충북 창업 노마드포럼 개최

도내 창업가, 투자자, 성공한 선배기업, 창업유망기관들이 충북의 창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4월 6일 오후 4시 오송 C&V센터에서 '투자유치 잘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제3회 충북 창업 노마드포럼이 개최됐다.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충북 중소벤처기업청, 도내 창업 및 선배기업, 창업유망기관, 투자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창업기업 투자유치발표(IR) △참석자 1분 스피치 △선배 창업기업의 투자받은 스토리 공유 △벤처투자자가 바라보는 2023년도 투자시장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창업기업 투자유치발표(IR)에서는 최첨단 반도체 지능화 시스템을 개발한 GSF솔루션 김승환 대표와 고성능플라스크를 만드는 삼일화학 김주민 대표의 발표 및 투자사들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충북 창업생태계를 위한 참여자들의 1분 스피치가 진행됐다.

이어 '투자유치 잘 받는 법'이란 주제로 도내 선배기업인 인벤테라 신태현 대표, 푸디업 김태훈 대표, 오토텔릭박

이오 김태훈 대표가 투자유치 경험을 발표했으며 벤처투자자 대표 2명의 '투자자와의 미팅할 때 Do & Don't' 및 '2023년도 투자시장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충북 창업 노마드포럼이 충북 창업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되길 바란다"며 "충북도의 창업 및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 창업유망기관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행사 추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월부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충북 창업 노마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충북 창업 노마드포럼은 우수한 창업기업을 적극적인 발굴하여 투자유치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충북도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아낌차게 시작한 포럼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창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정화기자

경북도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공모사업 선정!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수산가공산업 패러다임 전환

경북도는 해양수산물 주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수산물 가공부문에 적용해 스마트 관련 기반시설과 기술개발(R&D),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 모은 일종의 산업단지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80억원(국비 266억원, 도비 114억원)을 투입해 영덕 강구면 금호리에 위치한 로하스농공단지 일대에 스마트기술(IoT, AI 등)이 적용된 공유기반 수산물 가공시설과 콜드체인 자동물류시스템, 빅데이터센터, 디자인통합지원센터 등을 주요시설로 하는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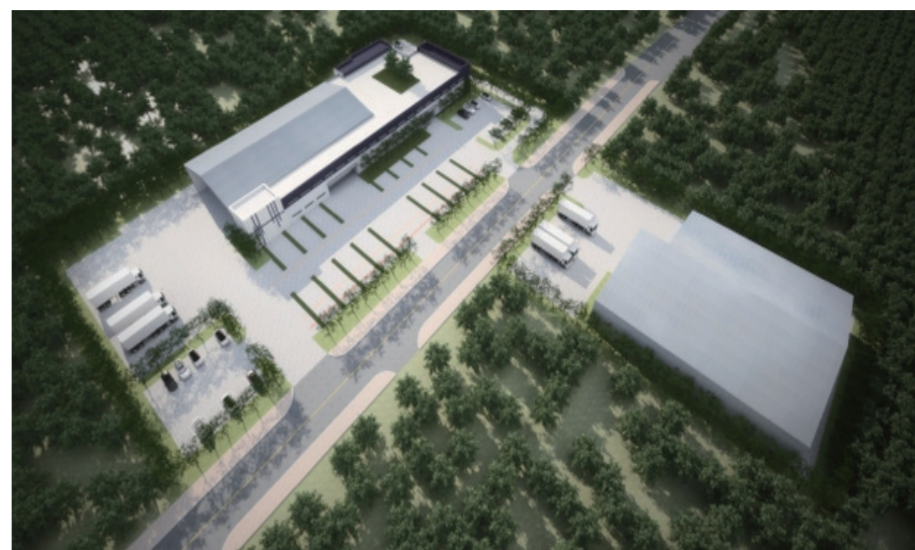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경북 동해안 전략품종(붉은 대게, 오징어, 가자미)에 대한 스마트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

이터 기술을 활용해 수산가공식품 업체뿐만 아니라, 양식업자, 어업인, 지자체 및 기업지원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예측 가능한 수산가공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 구축 운영 중인 수산식품거점단지(포항, 영덕, 울진) 내 자동화 생산시설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스마트 생산기반 고부가가치 상품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와 청장년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민선 8기 해양수산분야 역점 프로젝트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경주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 마린보이 프로젝트, 수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상용화센터 구축,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확대 등 산·학·민·연의 전문가와 협업해 '어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포항에 연어 스마트양식 기반 시험시설 및 대규모 양식장



가공처리시설,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비 10억원을 반영해 어촌 청년유업을 위한 마린보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14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96억원)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도 국비사업 건의를 위해 블루푸드 R&D 개발, 수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상용화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유역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해양수산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중권 경북도 환경해역본부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스마트 기술을 수산가공식품산업에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해양수산산업으로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3년 부산시 도시재생 전문기업 40여 개 업체 공모 선정한다

부산시는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참여 도모와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전문기업 지정사업' 공모를 오는 4월 19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2019년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부산지역 업체 132개*를 선정해왔다. 올해는 40여 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공모 기간은 지난 3월 31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기업 본사가 부산시에 소재하고 도시재생사업 실적 및 계획, 매출, 성장률 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중소·중견업체이다.

분야는 부산시의 5대 도시재생 특성화 전략에 맞춰 ▲재생기획(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무소, 대학산학협력단 등) ▲물리적 재생(종합 전문 건설업 등) ▲사회·경제적 재생(지역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스마트 재생(스마트솔루션, 스타트업 기업) ▲문화예술재생(전시/행사/관광/디자인 등 문화예술업, 영상컨텐츠 개발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서·인증현판 등 부산시 도시재생기업 홍보와 더불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청년 도시재생사 양성 사업과 연계한 청년인턴 지원 등 인재 채용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방문(부산시



중앙대로 1001, 24층 창조도시과) 또는 우편으로 접수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도시재생 전문기업 선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 전문기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기업을 예비 선정하고, 4월 말 부산시 및 (재)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연간 6,000~7,000억 규모(전국)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한 부산시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고, 부산형 도시재생을 선도할 도시재생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부산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참여할 지역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게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고양특례시, 산업·상업 건물 태양광 설치비 지원

고양특례시는 건물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고양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뿐만 아니라 산업·상업 건물까지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단에 선정된 고양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국비 보조금은 킬로와트(kw)당 972,000원, 시비 보조금은 킬로와트(kw)당 58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6억원을 투입해 50여개 건물에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 중 업체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4월 10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국비 보조금을 신청

하고,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중시터 3층)으로 방문해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접수순으로 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에너지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수원시,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함께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동상협력 업무협약' 체결하고, 중소기업 수출 저변확대 위해 협력 약속

수원시가 경기FTA(자유무역협정) 통상진흥센터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동상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강경식 경기FTA통상진흥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원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FTA 통상교육·컨설팅·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비관세장벽, 탄소국경세 등 신통상 사업을 지원하고 각종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2011년 2월 개소 이래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사업평가'에서 10년 연속 최고점을 받았다.

센터는 기업에 ▲FTA 종합상담 ▲기업방문 1대1 FTA 종합 컨설팅 ▲실무자 맞춤 교육 ▲FTA 체결 해외시장 경영 전문 교육 ▲FTA지역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소비재 기업 위주) 등을 제공한다.

강경식 경기FTA통상진흥센터장은 "수원시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시 기업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로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수원시와 우리센터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 유치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 기업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성장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 판로 개척이기 때문에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을 받

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관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아리랑TV와 함께 기업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해외 TV 송출을 지원하고, 지난 2월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수출운송 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수출 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00곳 인증해 경기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경기도, 올해 '유망중소기업' 200개 사 인증 추진...5월 10일까지 접수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200개 사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재무상태, 지식재산권 보유, 수출실적, 인증 보유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인증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5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의 대표 인증제도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보유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세력 기업(스타트업) 10개 사, 최초 인증 150개 사, 재인증 40개 사 등 총 200개 사를 인증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올해부터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인증 유지 기간은 5년(재인증은 3년)이다.

'스타트업' 분야는 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중소기업이며, '최초 인증' 분야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인증' 분야는 인증이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업체 중 최



인증 희망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에는 경기도 지원 명목의 인증현판과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권이 주어지며, 인증 기간 동안 브랜드 확산과 광고·홍보가 지원된다. 또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장금 신청 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등 9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총 61종의 혜택을 지원한다.

도는 요건평가, 서류평가, 법 위반 조회·검증, 현장 조사, 인증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

중 대상을 확정해 10월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0일까지 이지비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태중 도 특허기업지원과장은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도내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은평구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도 어렵지 않아요"

서울 은평구가 중소기업이 전시·박람회에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전시·박람회는 중견기업 이상만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용도 부담이지만 복잡한 절차 등으로 전시·박람회 참가 장벽은 높았다.

최근 전시·박람회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활기를 띠며 기업 홍보와 네트워킹 형성을 통한 판로개척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은평구는 판로개척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전시·박람회에 참가할 때 발생하는 부스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 자생력을 높이고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올해 신규 사업이다.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은평구 소재 중소기업 총 8곳을 우선 모집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세금 체납, 다른 기업과 공동참가, 허위 서류 제출,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 지원받은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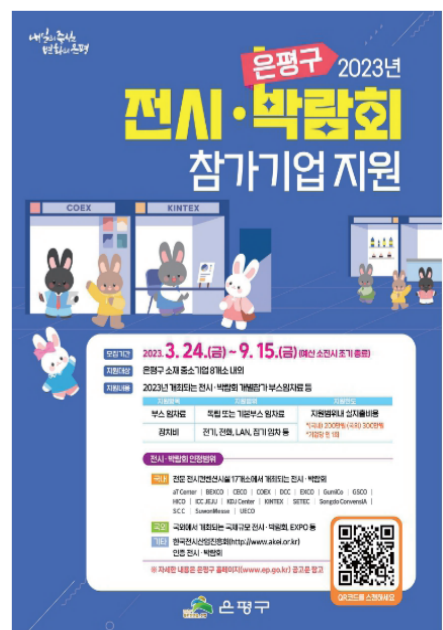
선정과정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은평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열리는 전시·박람회에 참가할 때 발생하는 부스 임대료, 장치비 등 실제 지출 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국내 박람회는 2백만, 해외는 3백만 원까지다.

지원되는 전시·박람회 인정 범위는 코엑스, 벡스코, 킨텍스 등 국내 전문 전시·컨벤션시설 17곳에서 열리거나, 한국전 시산업진흥회에서 인증한 전시·박람회로 한정된다. 해외의 경우 국제 규모 전시·박람회, 엑스포(EXPO) 등이 해당한다.

지원받은 기업은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안에 증빙 서류를 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흡한 경우 보완해야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중소기업 성장은 지역경제 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기도, 무료 세무상담 재능기부 '마을세무사' 9명에 표창장 수여

도, 농어촌 주민 등 세무상담 어려운 도민에게 무료 상담 재능기부한 마을세무사 9명에 표창장 수여

경기도가 영세사업자나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한 마을세무사 9명에게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창은 재능기부를 통해 경기도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정 발전에 헌신한 마을세무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장기간 경기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세무사를 선정했다. 이번 유공 대상자는 ▲오경식 세무사(수원시) ▲김선명 세무사(성남시) ▲조상기 세무사(부천시) ▲김채영 세무사(용인시) ▲윤석진 세무사(의정부시) ▲이지희 세무사(파주시) ▲채백희 세무사(이천시) ▲이익재 세무사(양주시) ▲김동천 세무사(포천시) 등 9명이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



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 183명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2020년 1만4,648건, 2021년 1만4668건, 지난해 1만2,842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의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신 마을세무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울진군보건소, '제51회 보건의 날' 보건의료사업 평가 부문 대상 수상

울진군은 4월 7일 울진군보건소가 경북 보건의료사업 평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51회 보건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내 시·군 보건소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보호 및 보건정책 발전을 위해 수고한 유공자에게 표창 수여를 했으며, 울진군에서는 민간인 부문에서 후포오차드요양병원 행정원장이 경상북도지사상을 수상했고, 울진군보건소는 우수기관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울진군은 전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부문에서 각각 경상북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여 보건사업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건강걷기 문화조정, 건강생활실천(비만·영양·절주), 장수팔팔 건강마을 만들기,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조성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과 섬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개인별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화모 보건소장은 "울진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분야 전반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울진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황석선 대구 중구보건소장 '제51회 보건의 날' 대통령상 수상

대구 중구 황석선 보건소장은 지난 7일 개최된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구 경북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51회를 맞는 보건의 날은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분야 및 복지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황석선 소장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중구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하고, 보건혁신 분야 대상(전국유일)을 수상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점검단의 단장으로써 시스템 접속률 평가 100%(전국 1위)를 최초로 달성하여, 제14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新PHIS)의 통합 구축사업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

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동현/기자

원풍상회 조영호 대표, 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합천군은 7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인원이 5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500호 주인공은 바로 원풍상회 조영호 대표이다. 조대표는 7일 지정도 재외합천향우연합회장과 함께 합천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해 500호 기부자가 됐다.

조대표는 합천을 외곽마을 출향인으로 원풍상회의 대표다. 원풍상회는 대구 매천시장에 위치한 견과류 가공 및 도매업체이다. 조대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교육발전기금 500만원씩 기탁하여 총 기탁액이 5,500만원에 이르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이웃돕기성금을 기탁했고,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밤, 땅콩등을 수매 및 가공하여 전국에 유통시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합천 사랑의 선두주자라고 할 만큼 꾸준한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 조대표는 지정도 연합회장을 시작으로 이어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 네 번째 주자로 나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참여 방법을 널리 알리며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으며, 고향사랑



기부 후 받은 답례품(150만원 상당)을 다시 기부하여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조영호 대표는 "항상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홍보하고 기부 참여가 확산되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조영호 대표님께서 오랜 시간 변함없이 합천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

성화시킴으로써 보내주시는 합천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최광용/기자

서울시, '부활절 퍼레이드' 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4월 9일 0시부터 22시까지 광화문일대 교통 단계별 통제

오는 4월 9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사)한국교회총연합회 주최하에 3년만의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서울시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에 따라 4월 9일 0시부터 22시까지 퍼레이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화문 일대의 도로를 단계별로 통제한다.

올해 '부활절 퍼레이드'는 오는 4월 9일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열린송현녹지광장 일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행사의 백미인 '부활절 퍼레이드'는 서울의 중심부에서 다양한 퍼레이드 행렬과 공연단들의 화려한 퍼포먼스 공연을 펼친다.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세대의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는 (사)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가 후원한다. 1부 퍼레이드(13:30~17:30), 2부 기념음악회(17:30~20:00)순으로 행사가 진행되며 광화문 육조마당과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는 'MZ세대 놀이터', '거리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부스 등도 마련되어 있다.

서울시와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사무국은 '2023 부활절 퍼레이드' 행사에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을 위해 안전펜스 및 라바콘 등으로 안전통제선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예방, 주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대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이 우회 운행하고, 구간 내 시내버스 정류장이 폐쇄됨에 따라 종로로 이동하려는 시민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 후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시내버스 이용 시 버스정류소 및 차내에 부착된 우회 운행 안내문을 참고해 미리 우회경로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최경주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2023 부활절 퍼레이드'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개최되는 행사로 이전보다 더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부활절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니 온 가족이 함께 도심 속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대전시립교향악단, 신인발굴음악회 협연자 공개모집

대전시립교향악단은 '신인발굴 음악회'에 협연할 우리 지역 청소년 및 젊은 음악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 음악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번 공개모집은 대전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을 빛낼 젊은 클래식 음악인을 오디션으로 선발한다.

이번 연주회 협연자 선발은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며 기악과 성악분야로 모집인원은 9명 이내이다. 원서는 오는 5월 30일~6월 1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접수 받는다.

합격자는 1차 연주 영상 심사와 2차 실기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협연자들은 올 9월 20일 대전시향과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연주 무대를 갖는다.

오디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대전시향과 함께 대전지역 젊은 연주자들이



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립교향악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향 관계자는 "올해도 대전시향과 함께 대전지역 젊은 연주자들이

데뷔할 신인발굴 음악회 협연자 오디션에 열정과 패기 넘치는 젊은 음악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제21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울릉군은 4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1회를 맞이하는 울릉도 오징어 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저동항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오징어축제를 주된 및 전 국민이 제안하고 함께 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오징어 축제에 걸맞는 실현가능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공모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징어축제의 대표상징인 '오징어' 관련 콘텐츠, 울릉군 설화 또는 주민 화합과 관련된 프로그램, 다양하고 참신한 체험형·맞춤형(가족,연인,친구) 프

로그램 등 기존 오징어축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울릉군과 오징어축제 실무위원회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당선된 프로그램은 제21회 울릉군 오징어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 서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울릉군 관광문화체육실 문화예술팀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중·조강재/기자



목포시, 수군스토리와 함께한 '2023 유달산 봄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충무공 이순신·노적봉 수군 스토리 담아내며 다채롭게 준비

4월의 신록과 유달산 봄을 한껏 느낄 수 있었던 '2023 유달산 봄축제'가 수많은 상춘객의 발길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유달산 봄축제는 지난 8일과 9일 '유달산의 봄, 이순신의 재탄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 웅장하게 연출된 수군 퍼레이드가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 첫날 정명여중·고생 500여명의 4.8 만세운동과 1,000여명의 각계 각층 시민참여로 수군 퍼레이드가 이뤄졌다.

수군퍼레이드에는 목포·신안 통합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목포 23개동과 신안군의 이·동장단·자생조직은 물론, 어린이집, 해군3함대, 목포해양대, 시 체육회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의 강인한 정신과 목포 수군의 역사를 담아내며 시민 화합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마스코트가 행렬에 참여해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특히, 시는 이번 축제에서 목포와 수군의 역사 스토리를 담아내는 데 집중했다.

목포에서 수군의 역사는 고려 왕건 시대 압해도에서 수달이라는 별칭으로 위세를 떨친 능창장군의 맹활약부터 시작한다.

조선 세종때는 지금의 목포진인 만호진이 설치돼 서해 바다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현재의 만호동도 이 역사에 따라 이름 붙여졌다.

이 충무공은 해발 60m의 작은 바위산인 유달산 노적봉에 벼짚을 쌓아 군량미가 많아 보이게 함으로써 왜군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위장전술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함께 오늘날 목포에는 충무공의 불패신화와 호국정신을 계승한 해군제3함대 사령부도



있어, 해양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시는 이런 수군의 역사에 착안해 이번 봄축제에서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수군문화병영 체험, 조선시대 장터 재현과 같은 수군관련 콘텐츠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목포와 수군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유달산 일원에서 펼쳐진 풍성한 볼거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페이스페인팅과 도자기 물레, 유달산 도깨비 석교방향제 만들기 등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다.

토크 콘서트도 큰 관심을 끌었다. 김범수, 나비, 데이, 김나영과 같은 유명 가수가 출연한 토크 콘서트는 음악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며,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는 시정 목표로 걸맞게 MZ세대를 겨냥한 젊은 감각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장

용인시, 효 콘서트 가수 활동 어르신 선발 '나도 가수다' 오디션 열려



▲ 용인시 치인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나도 가수다' 본선 오디션 무대에서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 치인노인복지관은 7일 대강당에서 '나도 가수다' 본선 오디션을 열었다. '나도 가수다'는 치인노인복지관 바람골 카페 효(효) 콘서트 가수로 활동할 어르신을 선발하기 위한 이벤트다.

지난 3월에 열린 예선 오디션 참가자 65명 가운데 20명이 본선 무대에 올라 뛰어난 노래 실력을 선보였다. 이날 황춘화 명지대학교 교수 등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가창력, 무대매너, 관객 호응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 '꿈에 본 내 고향'을 부른 장기수(76세, 상하동) 어르신 등 12명의 어르신을 최종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어르신들은 매주 화~금요일 치인노인복지관 앞에서 열리는 '바람골 카페 효(효)콘서트' 가수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람골 공연단, 초대 가수 등의 축하 무대 등의 부대 행사도 열렸다.

조혜영/기자

영천시 청년고리 프로젝트·청춘콘서트 성황리 개최!

영천시는 지난 7일 망정 우로지 공원에서 청년창업가 로컬마켓과 청년 아티스트들이 주인공이 되는 '청년고리 프로젝트·청춘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완연한 봄 날씨를 맞아 우로지 공원 소공연장을 중심 무대로 한 청년 문화예술가들의 버스킹, 마술쇼, 클래식 연주 외에도 다양한 체험 부스, 청년창업가 직접 만든 먹거리(뽕잎김밥, 떡디저트 등), 소품(유리 및 매듭 공예 제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방문객 및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관내 청년창업가 사업장 및 제품 홍보 등을 위해 3D 기술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메타버스 맵을 체험해 보는 부스 운영 외에도 VR 전용 기계, 태블릿 등을 활용해 각종 게임들

경험해 보는 등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을 제공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영천시는 이번 행사에 이어 연중 2~3회 추가적으로 청년고리 프로젝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육성 및 발굴해 청년이 주역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청년들의 열정으로 물든 봄을 시작으로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청년 창업가와 지역민들의 소통의 장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2023 안동평생학습축제, 시민·학생 1만 2천여 명 열린 호응 얻어



4년 만에 대면행사로 재개된 안동평생학습축제가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안동달충공원에서 시민과 학생 등 1만 2천여 명의 열린 호응 속에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안동에서 꿈꾸는 인생사계 - 변화하는 미래, 평생학습 ON'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틀간 40여 개 단체가 60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평생학습의 다양한 정보와 역할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평생학습 기관 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했다.

개막식은 시립합창단과 마술 공연 등 화려한 식전공연에 이어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과 추사 순으로 진행됐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저변 확산에 기여한 축제 유공자로는 안동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권명숙님, 김재향님, 구미라님이 선정됐다.

윤근수/기자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